

'키즈 특화아파트' 봇물

metro®
메트로 2015년 4월 17일 금요일 제3199호 www.metroseoul.co.kr



'시민큐레이터' 길 열린다

콜롬비아가 그리 세나

세월호 상처에 또 생채기 낸 4·16… 권력 1, 2, 3위 각자도생 p/3

대통령 그저그런 일정 중남미行… 이완구 '식물'에 최경환도 '외유'









시급 15달러 투쟁 15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도시에서 패스트푸드 체인점 종사자 등 저임금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동맹파업과 시위를 벌였다. 위로부터 뉴욕의 시위 현장, 뉴욕의 호텔근로자들의 동조시위, 시애틀의 동조시위. /연합뉴스

이완구의 '바위처럼'

"목숨 내놓겠다"는 발언에 이어 "(말바꾸기는) 충청도 말투가 원래 그렇다"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 있으리…'

이완구 국무총리가 대지에 깊이 박힌 바위처럼 굳세게 견디기로 한 듯하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여야의 쏟아지는 사퇴촉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국정수행을 할것"이라며 확고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16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을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며 기자들에게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이어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도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한 분의 메모나 진술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그렇게 (사퇴)한다는 것도 대단히 적절치 않다"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실체적 진실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는 자신의 전날 발언에 대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국민을 협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제가 너무 격해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저에게도 인간으로서 양심과 신앙이 있고, 이를 고려해서 격정적으로 말한 것 같은데 어제는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했다.



합동분향소 조문 거부당한 이 총리 이완구 국무총리가 16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사고희생자정부합동분향소에서 전명선 가족대책위원장 등 유가족의 항의로 조문을 거부당하자 인사한 뒤 돌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잦은 말바꾸기에 대한 지적에는 "충청도 말투가 원래 그렇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의원들은 "충청도를 비하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 총리는 세월호 참사 1주년인 이날 경기도 안산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전격적으로 방문했다. 또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간 기간에도 일정을 빼곡히 잡아놓았다. 흔들림 없이 총리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행동으로 보인 셈이다.

이날 문제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 총리를 향해 "본인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 좀 더 강력한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계속 자리에서 버티는 상황이 이어지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경기자 jkljkl@metroseoul.co.kr

힐러리 "헌법으로 동성결혼 보장해야"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동성결혼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린턴 전 장관의 캠프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클린턴 전 장관은 결혼의 평등을 지지하며, 연방대법원이 동성 커플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편에 서기를 바란다"고 발표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 12일 발표한 출마 선언 영상에서 동성 커플을 등장시키기도 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2008년 대선 경선 당시에는 동성결혼에 반대했다. 2013년 동성결혼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법제화 여부는 각 주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미국에서는 각 주별로 동서결혼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2차대전 일본군, 미군포로 산 채로 화장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군이 미군 포로들을 산 채로 화장했다는 내용을 담은 미군 문서가 16일 중국에서 공개됐다.

이날 중국의 신화망에 따르면, 쓰촨성의 젠촨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전쟁 당시 미군의 기밀문서에는 1944년 후베이성 잉청에서 붙잡힌 미군 조종사 3명이 한커우시에서 화형당한 것으로 나와 있다. 미군 조종사 3명은 도쿄 공습 임무를 마치고 난 뒤였다.

이들은 화형당하기 전날 피투성이가 된 채 속옷 바람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4마일 이상 행진했다. 화형장에서도 약 30분간 학대를 당한 뒤 불에 태워졌다. 특히 1명은 살아있던 상태에서 불에 탄 것으로 전해졌다.

기밀문서는 중국에서 미군의 포로구출을 담당했던 힐이란 장교가 작성했다. 1995년 기밀해제된 뒤 2012년 힐의 딸에게서 한 화교에게 넘어갔다. 이 화교는 문서를 박물관에 기증했다. /송병형기자

돈 먹는 하마 '피스아이' 앉은뱅이 위기

핵심부품 64종 단종

공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가 도입 4년 만에 핵심부품 상당수가 단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 부품 생산 라인 조기 폐쇄로 피스아이의 장비유지비가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돈 먹는 하마가 된다는 이야기다. 자칫 앉은뱅이가 될 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3월 발간한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중기정책 방향(2014/2015)'에 따르면 피스아이 정비에 필요한 핵심부품 중 64종이 단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종된 부품 중에는 탐색레이더와 임무지원체계 등을 구성하는 핵심부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레이더의 경우 미국 정부의 수출승인 제한으로 정비에 필요한 기술자료 획득과 정비 능력 확보에 고충을 겪고 있다. 피스아이 기종을 운영하는 국가가 워낙 적어 관련 정보도 제대로 얻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피스아이를 도입할 당시



2012년 5월 16일 한국 공군에 인도된 피스아이 E-737. /보잉사 제공

계약서 상의 부품 제공 기한을 초과한 부품이 109종에 달했다. 계약서에는 우리 정부가 견적을 요청하면 미측은 120일 내에 요구하는 부품을 제공하게 되어 있다. 현재 일부 부품은 최대 2년 3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E-737(피스아이) 기종을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 호주, 터키뿐이다. 이들 국가에서 총 14대가 전력화되어 있다.

이 기종을 운용하는 국가가 소수이기 때문에 탐색레이더와 임무지원체계 등 E-737 고유의 부품 생산 라인이 조기에 폐쇄되어 정비부품 단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피스아이의 장비유지비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2년 9억1800만원, 2013년 24억5300만원에서 2014년 581억59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올해 장비유지비는 6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KIDA 책자는 분석했다.

우리 군이 미국 편중의 대형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이상 이런 현상은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정윤아기자 yoona1@



4·16 대한민국은 또 없었다

순방 떠난 박 대통령·식물총리· 자리 비운 부총리·의혹 대상 비서실장

박근혜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했다.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감동적이고 치밀한 준비는 없었다. 대신 공교로운 해외순방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까지 겹치면서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정부는 손을 놓고 말았다. 16일 참사 당시의 '국가는 없었다'는 비판이 다시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팽목항을 찾아 "이제 세월호의 고통을 딛고 그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에 나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우리는 지난 1년간 겪었던 슬픔에 좌절하며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예정에 없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긴급회동에서는 '성완종 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떠한 조치라도 검토할 용의가 있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해법을 미뤘다.

박 대통령은 김 대표와의 회동 직후 출국했다.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로 이어지는 중남미 4개국 순방길이다. "슬픔에 좌절하며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는 말처럼 '세일즈 정상외교'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첫 방문지인 콜롬비아는 이날 반군의 공격으로 주춤했던 내전이 격해지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에게 친서까지 보내 "꼭 15~17일에 방문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내전 격화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

정신이 없기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부재 시 나라를 이끌 이완구 총리는 고인(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폭로로 사실상 식물총리가 됐다. 다음 순위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해외 출장 중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까지 모두 소화한 뒤 오는 20일 귀국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다.

사실상 나라를 지휘할 청와대는 '성완종 리스트'의 또 다른 의혹 대상자, 이병기 비서실장이 지휘한다.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국가가 있다'고 믿는 국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팽목항을 찾은 대통령과 항의하는 시민들 박근혜 대통령(사진 위)이 세월호 참사 1주년인 16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방문했다. 이날 박 대통령 방문 현장에서 '세월호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구호를 외친 일부 단체 회원들(아래)이 경찰에게 격리조치됐다. /연합뉴스



동료들의 시체를 옮기는 콜롬비아 정부군의 모습. /연합뉴스

"박 대통령 꼭 15~17일에 와달라"… 콜롬비아에 무슨 일이 있길래?

15일(현지시간) 콜롬비아에서는 반군단체 FARC의 공격으로 정부군 10명이 사망했다. 이날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전투를 자제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반군에 대한 폭격 재개를 명령했다.

콜롬비아는 반군과의 격한 전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콜롬비아를 찾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0일 콜롬비아 대통령의 친서를 통해 간곡히 요청해서 거절할 수 없었다고 했다. 민 대변인은 출국 날짜와 관련해 "콜롬비아 정상이 1월 공식 초청 서한을 보낸 바 있다"며 "이번에 중남미를 방문하면서 콜롬비아를 방문할 수 있냐는 요청이 있었고, 실무적 연락과정에서 27일 이후에는 (콜롬비아) 국내 사정상 불가하고 앞쪽 (15~17일)에 와줬으면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윤아기자 yoona1@

단원구와 강남구는 딴나라인가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정부와 유가족은 날선 대립을 보였다. 이완구 총리의 조문은 거부당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환영받지 못했다. 전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조문을 거부당했다. 정부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메트로신문과 만난 한 안산시민의 입에서는 "주민들은 정부가 지역차별을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이 나왔다.

지난해 4월 22일 참사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학부모 20여명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구조작업은 더디고 지켜보는 부모의 가슴은 타들어간다"고 외쳤다. 이보다 앞서 2013년 11월 16일 서울 강남 삼성동 아이파크에 헬기가 충돌했다. 국토 교통부는 헬기충돌사고 현장에 조사관을 파견해 즉각 사고수습에 나섰다. 기장과 부기장을 제외한 민간인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안산이 아닌 강남 아이들이 탔다면'이라는 의문이 안산시민들의 마음 속에 자라난 이유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악운은 '유정복'을 비껴간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조상을 발복명당에 모시기라도 했나보다.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았지만 세월호 참사 직전 안전행정부 장관이었던 유 시장은 세인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유 시장이 3억원을 받았다고 적힌 '성완종 리스트'가 나왔지만 역시 세인들의 관심 밖에 있다. 10분의 1인 3000만원을 받아 궁지에 몰린 이완구 총리와는 대비된다. 악운이 유 시장을 비껴가고 있다.

유 시장은 22살 연세대 재학 중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장관직 러브콜만 3차례 받았다. 그 사이 최연소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경력이 줄줄이 이어진다. 17대 국회부터 내리 3선을 했다. 큰 구설수 없이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아온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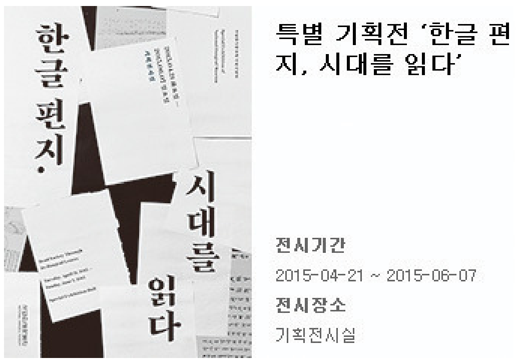
유 시장의 관운은 특히 지난해 더욱 빛을 발했다. 유 시장은 2013년 3월 13일에 안행부 장관에 취임하여 2014년 3월 6일 사임했다.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인천시장 후보로 차출됐다. 유 시장의 사임 약 한달 후인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온갖 오욕은 유 시장이 아닌 차관으로 있다 자리를 물려받은 강병규 전 장관이 짊어졌다.

유 시장은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6·4지방선거에서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을 누르고 승리했다. 선거전에서 유 시장은 송 전 시장의 측근 비리를 물고 늘어졌다. 인천시민들에게 "인천시의 부정부패·측근비리를 척결하고 '깨끗한 인천'을 만들겠다"며 표심을 자극했다.

유 시장이 부패척결을 외치며 취임한 지 일년이 되지 않아 '성완종 리스트'가 나왔다. 유 시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는 19대국회에서 만난 동료 의원 관계일 뿐"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서이기자



안전행정부 장관 시절의 유정복 인천시장. /연합뉴스



특별 기획전 '한글 편지, 시대를 읽다'

전시기간
2015-04-21 ~ 2015-06-07
전시장소
기획전시실

The Unsent Letter to Mother During the Korean War.

A True Story 65 Years Ago. Made Into the Film 'Into the Crossfire'

"Mother, I have killed a man. There must be around ten men behind the thin stone wall. Arms and legs have been torn out. Mother, why must war exist? I washed my inner wear yesterday. I don't know why I thought of grave clothes as I put on my washed and clean inner wear. I might die today, but I will live on. I will return to you no matter what. Mother! I miss the lettuce-wrapped rice. I want to drink up ice water endlessly. Ah! The enemy is approaching. I'll write again. Mother, Bye! Bye! Ah, not bye. I'll write again. Lee Woo Gun, a middle school third grader who fought in the Korean War and died, left a letter to his mother which was found buried."

The letter was found in his clothes on August eleventh 1950 at the battle of Pohang girl's middle school. This became the plot for the movie 'Into the Crossfire'. The letter will be revealed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ird floor Design Gallery Room, from the twenty first of this month to June seventh. The exhibition's theme is 'Reading the generation of Hangul Letter'. Among the letters to be displayed, the oldest Korean letter by Na Shin-Gil, a military officer from the Joseon Dynasty. From electronic mail (e-mail) after the 1990's to modern communication network (SNS) will be introduced. Also, the exhibition will provide information on the changes of communication method and related language character and lifestyle.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부치지 못한 6·25 어머님 전상서

영화 '포화 속으로'의 65년전 실화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 명은 될 것입니다. 적은 팔·다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어제 내복을 빨아 입었습니다. 물내나는 청결한 내복을 입으면서 저는 왜 수의를 생각해 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어머니!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아! 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아,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그럼…"

학도병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서울 동성중학교 3학년 이우근이 어머니 앞으로 썼다가 부치지 못한 편지다. 편지는 1950년 8월 11일 포항여중 전투에서 전사한 그의 옷속 수첩에서 발견됐다. 이 전투는 영화 '포화 속으로'(2010)의 소재가 됐다. 편지는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한글 편지, 시대를 읽다'라는 주제의 전시회다. 이 자리에서는 현존하는 한글 편지 중 가장 오래된 조선시대 군관 나신걸의 편지도 있다. 또1990년대 이후 전자우편(이메일)과 최근의 누리소통망(SN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통 수단을 통한 시대 이야기를 소개한다. 한편 소통 매체의 변화와 관련된 언어문자 생활도 재미있게 풀이될 예정이다.

세월호…그리고 신세계



염지은의 유통바로보기

슬프고 잔인했던 날을 다시 맞았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던 1년전 그날. 분노와 절망, 고통과 탄식이 가득했던 참혹했던 그날의 풍경이 아직 생생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눈물 흘리며 괴로와했습니다. 분노를 넘어 '잊지 않겠다'는 반성의 다짐과 각성, 약속을 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노라, 부패하고 무능력한 정부의 책임을 묻겠노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노라….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밝혀진 진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 부패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박근혜정부를 쓰나미처럼 강타하고 있는 성완종씨의 죽음은 마치 세월호 희생자들의 복수와도 같이 느껴집니다. '진실'을 가린 거짓과 '우상' 들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비극입니다.

세월호에 빗대기는 모하지만, 최근 메트로신문사에도 진실을 가리려는 모 기업의 우스꽝스런 촌극이 있었습니다. 신세계 홍보실의 메트로신문 '강탈' 사건입니다. 서울 회현역 근처에서 신세계 홍보실 직원 두명이 출근 길에 메트로신문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던 도우미가 들고 있는 신문을 강제로 빼앗고 배포대에 놓여있던 신문도 탈취해 도망친 일입니다.

메트로신문은 이날 이마트의 신인사제도가 3년여 전부터 그룹차원에서 치밀하게 준비된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젊은 신세계 직원 두명과 60대 도우미, 70대 시민 한명이 신문을 빼앗고 지키려는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남대문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했습니다. 이 사이 배포대에 있던 신문을 탈취한 신세계 직원 한명은 신문 뭉치를 든 채 택시를 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현장에 남있던 신세계 직원은 처음에는 모 신문사 직원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다 경찰이 도착해서야 이마트 홍보팀 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혔습니다.

신세계 직원들의 행위는 형법상 특수강도 또는 특수절도로 처벌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또 영업방해 행위입니다. 이 일이 신세계 조직차원에서 계획적으로 벌어진 일인 지, 해당 직원들의 개인적인 돌출 행동인 지는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 입니다. 하지만 더욱 한심한 일은 이 사건 이후의 신세계 홍보실 측의 대응입니다.

신세계 측은 사건 직후 거짓 찌라시를 만들어 뿌리고 한국광고주협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등 마치 광고 협박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처럼 궁색한 거짓말을 늘어 놓으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사에 공식적으로 어떠한 사과나 유감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판 기사를 봉쇄하고 심지어 신문을 강탈하면서까지 숨기고 싶은 '진실'이 많은 신세계. 메트로신문 강탈 사건은 신세계 '민낯'의 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한때 유통명가로 불리며 윤리경영을 외치던 신세계가 왜 이지경까지 오게 됐을까요. 존경받았던 또 하나의 기업이 침몰직전에 놓인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SSAT·HMAT에 낙담한 그들의 건투를 빈다



기자 수첩
양소리
<산업부 기자>

꽃게가 제철을 맞았다. 어획량 감소로 가격이 40%나 올랐다는데 판매량은 30%가 늘었단다. 여기 또 제철을 맞은 이들이 있다. 일명 취준생, 바로 취업준비생들이다. '취업철'을 맞긴 했는데 공급과잉과 수요부족으로 몸값도 판매량(?)도 도통 늘지 않는다. 꽃게가 부러울 지경이다.

얄밉게도 재계순위 1,2위 기업인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의 인적성검사는 몇 해째 같은 날, 혹은 하루 차이로 실시되고 있다. SSAT(삼성직무적성검사)냐, HMAT(현대인적성검사)냐 결단을 내려야 한다.

취준생은 머리를 굴린다. 삼성은 서류전형에 탈락자가 없어 SSAT를 보는 인원이 약10만명 수준이다. 경쟁률이 높다. 그러나 허수도 많다. 현대차그룹은 서류로 한 번 걸러진 이들 1만명이 응시하니 싸워야 할 적수가 적다. 하지만 허수도 적다.

알겠지만 그 결단은 그냥 결단일 뿐. 당일 시험장에선 더욱 혹독한 진빼기가 시작된다. 올해 SSAT에는 상식영역에서 경제·역사 문제가 60%나 출제됐다. 한 지원자는 "삼성은 사학자를 뽑아서 스마트폰을 파나보다"며 불멘 소리를 냈다. HMAT에는 이공계생도 풀기 힘든 공간지각 영역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 카이스트 출신의 멘사 회원이라는 지원자 한 명은 "멘사 문제만큼 어려웠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데 또 이 야박한 이들은 다음 기회도 잘 주지 않는다. 삼성이 주는 SSAT를 볼 수 있는 기회는 딱 세 번뿐이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낙방했다면 삼성은 갈 수 없는 회사가 된다. HMAT도 두 번 이상 떨어진 지원자라면 현대차그룹 입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취준생들의 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터넷엔 'SSAT 특강', 'HMAT 족집게 스터디'가 판을 친다.

이달 말 SSAT와 HMAT 합격자가 발표된다. 탈락의 고배를 마신 이들의 낙담의 시간이 시작될 터다. 한데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만 회사랴. 어딘가 누군가는 당신을 필요하다 하는 날이 올터다. 너무 낙담치 않기를. 그리고 모두의 건투를 빈다.

인사

■ 화이트페이퍼
◇ 신임 ▲ 대표 사장 장윤영 ▲ 부사장 겸 북데일리 대표 임정섭 ▲ 편집국장(이사) 이경호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 의대병원 기획진료부원장 정호연 ▲ 의대병원 내과부장 김종진 ▲ 치과병원 QI 부장 강경리 ▲ 치과병원 보존과 과장 직무대행 장지현
■ 국토교통부
◇ 과장급 전보 ▲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이광원
■ 국무조정실
◇ 고위공무원(국장급) 임용 ▲ 외교안보정책관 이인호
■ 국립공원관리공단
▲ 경영기획이사 최운규 ▲탐방관리이사 정정국 ▲ 기획재정처장 황명규 ▲ 상생협력실장 정용상 ▲ 북한산생태탐방연수원장 이규성 ▲ 국가지질공원사무국장 박선규
■ KBS
▲ 제주방송총국 편성제작국장 문정근

부고

▲ 진필홍(전 KBS 예능국장)씨 별세 = 15일,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2층 3호실, 발인 17일 ☎ 02-2072-2014
▲ 김현호(동인교육재단 이사장, 포항CBS 이사장)씨 별세, 정규(계명대 교수)·민규(포항예고 교감)씨 부친상 = 16일 오전, 포항시민장례식장 5호실, 발인 18일 오전 10시 ☎ 054-253-4444
▲ 김정연씨 별세, 장경수(가천대 명예교수)·경욱(전 기무사령관)·명수(LG화학 과장)·경자·경숙·경애씨 모친상 = 16일 오전 2시, 서산중앙병원 장례식장, 발인 18일 오전 10시 ☎ 041-669-1414
▲ 이영애씨 별세, 나승서(추계예술대 교수)씨 모친상, 김충식(㈜더우드 대표)씨 빙모상 = 15일 오후,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8일 오전 6시 ☎ 010-2350-8084
▲ 권영봉씨 별세, 오한(경북도민일보 안동주재기자)씨 부친상 = 16일 오전 1시 20분 경북 안동 성소병원 장례식장, 발인 18일 오전 8시 ☎ 010-2529-0888

'인터넷전문은행' 시동… 금융당국 "준비됐습니까?"

임종룡 "지금이 호기… 규제 치우겠다"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에 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의지를 밝힌데다 사업모델과 도입방안 등 설립 논의가 본격화된 데 따른 것이다.

16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날 오후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인터넷과 모바일 상에서 예금 수신과 이체, 대출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말한다.

이는 별도의 영업점이 없기 때문에 지점 개설과 유지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02년과 2008년 두차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 '은산(銀産) 분리'와 은행에 가지 않고도 예금 계좌를 만드는 '비대면 실명확인' 문제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 '비대면 실명확인'·'은산분리' 발목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같은 IT 자본도 운영할 수 있게 구상돼있다. 하지만 고객의 돈이 재벌의 사금고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태평양의 조정래 법무법인 변호사는 "은행업 진입과 운영단계에서 금융위의 인가 제도, 대주주와 거래 규제 제도 등을 활용해 금융시장 발전과 금융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회사를 걸러내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재벌에 대해선 인터넷은행 진출을 계속 불허하되, 은행업 진출을 차단하는 산업자본의 비금융 자산총액(2조원 이상)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동일인주주 규제, 대주주 거래제한, 대주주 의무사항 등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원은 또 "인터넷은행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비대면 실명인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비대면 실명인증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복수의 방법을 활용한 다단계 방식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신분증의 진위 등 전자적 실명확인 ▲영상통화를 통한 얼굴 대조와 개인정보 확인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된 대면 확인계좌를 통해 실명을 확인한다는 의견이다.

사업모델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주요한 과제로 꼽혔다.

◆ 임종룡 "도입 적기…규제 완화 검토"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비금융주력자의 정의를 어떻게 개편할지의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사안"이라면서 "특정한 안을 두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조영서 베인앤컴퍼니 파트너는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위한 선결과제로 ▲ICT기업의 참여를 위한 금산분리 규정 완화 ▲적정한 최소자본금 책정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을 꼽았다. 또 ▲개별 은행의 특정보험사 상품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게 한 방카 모집액 25% 제한 규정 완화 ▲의무 점포 개수(30개 이상)를 정한 신용카드업 인가지침 변경 등도 내놨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6월 중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해 "그간 견지해왔던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십년간 대면으로만 허용되던 실명확인 방식 관행도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고 길을 열었다.

임 위원장은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적기이자, 호기"라며 "온라인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제를 재설계하고 걸림돌은 적극 치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좌개설시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논의를 하면서 촉발됐지만 모든 금융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며 "이른 시일내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여전사 수익성 악화 지속

당국 "모니터링 할 것"

지난해 캐피털과 리스업체 등 여신전문금융업계의 자산과 건전성은 좋아진 반면 수익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사 65곳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순익이 전년보다 3.0% 감소한 1조51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할부금융과 시설대여, 신기술 사업 등 본업부문의 경우 자동차 할부금융 취급수수료 폐지와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2.7%(724억원) 감소했다. 다만 총자산은 9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보다 6.5%나 증가했다.

고유자산이 자동차 할부·리스 취급 증가 등으로 6.9% 커진데다 대출채권 등 기타자산도 6.3% 올랐기 때문이다.

할부금융 부문의 신규 취급액과 시설대여업은 각각 11조7000억원, 11조3000억원으로 1조원, 1조3000억원 늘어났다. 반면 신기술사업금융은 9237억원으로 1000억원 줄었다.

총채권 연체율은 2.82%로 1년 전보다 0.43%포인트 하락했으며 고정이하채권비율은 3.03%로 0.21%p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사의 자산규모와 건전성은 개선됐지만 본업부문(할부·시설대여·신기술)에서 운용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이익이 감소하는 등 당기순이익은 다소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여전사의 수익성과 건전성 등 영업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신규업무 개발동향과 리스크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KB국민카드-UPI "7월부터 모바일카드로 중국서 결제 가능" 16일 KB국민카드는 LG유플러스, 유니온페이인터내셔널(UPI)과 '모바일 카드 발급 및 결제 서비스 업무 제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협약식 후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왼쪽에서 첫 번째),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 거화용 차이나유니온페이 및 유니온페이인터내셔널 동사장(왼쪽에서 세 번째),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카드 제공



우리카드-UPI, 아시아 여행에 딱…'자유로운 여행카드' 출시 우리카드는 16일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유구현 우리카드 사장과 거화용 차이나유니온페이·유니온페이인터내셔널(UPI)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여행카드' 출시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국 관광의 해를 맞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우리카드는 유니온페이와 손잡고 여행 특화 상품인 '자유로운 여행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거화용 UPI 회장(왼쪽)과 유구현 우리카드 사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카드 제공

분양열기 고조… 내달 전국 6만가구 공급

지방시장 세종시가 주도

다음달 전국에서 5만9827가구 신규분양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달 수도권 3만4386가구, 지방 2만5441가구가 분양 계획을 잡고 있다. 전월대비 11.5% 감소한 수치지만 4월에서 5월로 연기되는 물량을 감안하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올 들어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 역시 9.63대 1을 기록하며 분양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13.14대 1 ▲경기 7.52대 1의 경쟁률을 보인다. 지방은 ▲광주 51.32대 1 ▲울산 37.57대 1 ▲대구 37.16대 1 ▲부산 25.77대 1이다.

5월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서울에서는 재개발분양 물량 위주로 성동구 'e편한세상옥수역' 1976가구, '왕십리자이' 713가구 등 3534가구다. 경기도는 전국 분양대기 물량의 49.4%인 2만9577가구가 공급된다. 고양시 '고양원흥호반베르디움' 967가구, 김포시 한강지구 '김포한강신도시반도유보라4차' 461가구, 시흥시 목감지구 '목감레이크푸르지오' 629가구, 용인시 '기흥역센트럴푸르지오' 1316가구 등 물량이 풍성하다. 인천은 경서지구 '인천경서대광로제비앙' 720가구, 금곡동 '인천금곡우방아이유쉘' 555가구 등 총 1275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에서 가장 많은 분양물량을 내놓는 곳은 세종이다. 세종2-1생활권 '중흥S클래스(L2, M2)' 1446가구, '한신휴플러스(M1, L1)' 2531가구 등 지방 시도 중 가장 많은 물량인 5141가구의 분양이 계획돼 있다. 경남은 거제시 '거제2차아이파크1·2단지' 1279가구, 양산시 물금지구 '양산대방노블랜드8차' 1062가구 등 4649가구가 분양을 앞두며 그 뒤를 잇고 있다. /윤정원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동심 유혹' 키즈 특화아파트 봇물

창의력 벽지·코너리스 가구 등 안전 설계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특화' 아파트가 잇달아 공급돼 눈길을 끈다. 낮은 출산율로 한 자녀가구가 늘면서 어린 자녀를 둔 30~40대 수요자들을 잡기 위해 아이를 배려한 다양한 시설들이 단지 곳곳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16일 통계청 장래가족추계 자료에 따르면 부부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4인 가구 이상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0년 3인 가구수는 4인 가구수보다 68만7372가구 적은 258만5039가구였다. 그러던 것이 2015년에는 3인 가구수가 276만8170가구, 4인 가구수가 287만8096가구로 차이가 10만9926가구로 줄었다.

특히 내년에는 3인 가구수가 279만7936가구로 4인 가구수(279만3723가구)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2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던 시대에서 1명의 자녀만을 키우는 시대로 접어든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은 단지 내 어린 자녀들을 배려한 시설을 적용하고 있다. 단순한 놀이시설의 기능을 갖춘 놀이터가 아닌 직접 체험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체험형 놀이시설이 설치하는가 하면, 아이들의 안전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인테리어를 적용하기도 한다.

현대건설은 이달 경기도 광주 태전5·6지구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태전' 실내에 어린 자녀를 위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자녀방에는 색채를 통해 학습과 감성에 도움이 되는 창의력 벽지를 사용하고,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 코너리스 가구를 배치한다. 또 모든 욕실에 미끄럼방지 타일을 사용, 어린 아이들의 사고를 방지했다.

롯데건설은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A27-1블록에 선보이는 '운정신도시 롯데캐슬 파크타운'에 키즈클럽과 작은도서관 등을 조성한다. 또 맘스카페를 만들어 엄마와 자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했다.



꿈의숲 코오롱하늘채에 조성되는 액티브그라운드 이미지.

코오롱글로벌이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2구역을 재개발한 '꿈의숲 코오롱하늘채'는 체험형 놀이시설을 설계했다. 중앙광장인 액티브그라운드에 마운드와 함께 밟으면 반응하는 바닥분수, 2인용 슬라이드 등을 만들었다. 또 어드벤쳐 그라운드에는 자체 디자인 특허를 출원한 통나무와 그물, 로프를 조합한 창의적인 놀이시설을 배치했다.

한라는 다음달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 C4블록에 공급하는 '시흥 배곧 한라비발디캠퍼스2차'에 체육교실과 농부교실 등을 갖춘 교육특화시설을 조성한다. 아울러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캠핑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일 정도로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주택구매력이 높은 30~40대 들이 대부분 어린 자녀가 있는 수요자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이를 위한 세심한 배려는 직접적인 실수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용인 역북 '우미린 센트럴파크' 분양

우미건설, 총 1260가구… 오늘 견본주택 개관

우미건설이 경기도 용인시 역북지구 C블록에 공급하는 '우미린 센트럴파크' 아파트가 17일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지하 2층, 지상 34층, 10개 동, 전용면적 ▲59㎡ 378가구 ▲75㎡ 122가구 ▲84㎡ 760가구 등 전체 1260가구 규모다.

용인 행정타운이 건너편이고, 용인경전철 명지대역과 이마트가 가깝다. 단지 옆으로 초교 1곳이 신설될 예정이고, 인근에 역북초, 용신중, 용인고 등이 있다.

남향 판상형 위주로 설계됐다.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남녀샤워실, 남녀구분 독서실, 카페테리아, 회의실, 게스트하우스 등의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 어린이공원과 연계한 어린이집과 안전하게 통학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스쿨버스존이 마련된다.

모든 세대 주방이 효율적인 동선의 'ㄷ'자 구조로 배치되고, 59㎡에는 부피가 큰 생활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지하 계절창고가 제공된다. 75㎡에는 현관 옆 워크인 수납공간이, 84㎡에는 넓은 와이드주방(판상형)이 적용된다.

21일 특별공급 후 22일과 23일 1·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9일, 계약은 5월 4~7일간 진행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940만원대다.

견본주택은 용인시 역삼동 주민센터 옆에 마련된다. 입주는 2017년 11월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정몽규 회장, 포니정재단에 123억 주식 기부

현대산업개발은 정몽규(사진) 회장이 15일 123억2000만원 상당의 현대산업개발 개인주식 20만 주를 포니정재단에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주가는 15일 종가기준 6만1600원이다.

정 회장은 오는 5월 21일 故 정세영 명예회장 타계 10주기를 맞아 기부를 결심했다. 포니정재단이 장학사업과 학술지원사업을 영속적으로 펼칠 수 있는 충분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포니정재단은 故 정세영 명예회장의 업적과 공로를 기리고 인재중시 철학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그의 아들 정몽규 회장이 지난 2005년 11월 설립했다.



재단은 설립 이래 포니정 혁신상 수여, 학술지원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장학금 증정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故 정회장의 철학을 이어가고 있다. 최초 33억원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포니정재단은 그간 26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번 주식 기부에 따라 총 출연금은 약 383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윤정원기자



신한카드, 자유학기제 맞춘 '청소년 금융교육' 실시 신한카드는 16일 경제교육 전문 비영리단체인 'JA코리아'와 손잡고 청소년 금융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양사는 서울 종로 백년관 신한카드 교육장에서 청소년 금융 교육을 실시할 '신한카드 아름人 금융탐험대(이하 아름인 금융탐험대)' 발대식을 가졌다.

/신한카드 제공

전세값 하이킥… 사상 첫 2억 돌파

서울 평균 3억5420만원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2억원을 돌파했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전세금은 2억93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2006년 3월(1억43만원) 처음으로 1억원을 돌파한 뒤 9년 사이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시·도별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서울이 3억5420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경기가 2억1145만원, 대구가 1억9688만원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부산(1억7256만원), 인천(1억6190만원), 울산(1억6154만원) 순이었다. 반면 전남은 8604만원, 강원은 8846만원으로 평균 전세가격이 1억원을 넘지 않았다.

지난 2006년 3월과 비교하면 대전과 강원을 제외하고 모두 2배 이상 전세금이 상승했다. 서울의 평균 전셋값은 9년 새 1억8059만원 올랐고 경기와 대구도 각각 1억원 이상씩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이 2억1516만원에서 2억8908만원으로 34%가량 오른 것에 비해 전셋값 부담이 더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4월 현재 각 시도별 가구당 평균 아파트값은 전국 평균 전세가격인 2억93만원보다 매매가격이 낮게 형성된 곳이 9곳이나 있다. 전남(1억1758만원), 강원(1억2707만원), 전북(1억4351만원), 경북(1억5107만원), 광주(1억6159만원), 충북(1억6212만원), 제주(1억6631만원), 충남(1억7450만원), 경남(1억9952만원) 등이 그 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올 1분기 동안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3.76% 올랐다"며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여전한 만큼 오름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정원기자 garden@

배곧에서 단 하나! 최초의 수익형 아파텔

ROYAL PALACE

4월 18일
모델하우스
GRAND OPEN

배곧이 뜬다! 서울대신도시에 투자하라!

경기도와 서울대 MOU체결, 배곧신도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서울대 국제캠퍼스와 글로벌 기숙사, 외국어 전용타운 유치





- 서울대가 선택한 배곧신도시
- 배곧신도시 21,541세대 중심위치
- 45.7만명 산업단지, 서울대 임대수요
- 저비용관리비 지역 냉·난방 시스템적용
- 중도금 60% 무이자
- 수도권 최저 분양가
- 층간소음 소닉스시스템 시공
- 전세대 3M층고 LED조명
- 2 in 1 테라하우스 특화세대

1% 금리시대 투자의 핫플레이스! 서울대가 선택한 배곧의 가치를 직접 확인하세요!

입지 엘리트 송도신도시, 인천논현, 송산 그린시티를 잇는 서해안개발의 미래비전 한가운데 위치
45만명 시흥중심개발지, 단지 인근 7만평 배곧중앙공원과 6km수변공원의 힐링환경

생활 엘리트 단지 인근 서울대 이전(병원 포함), 신세계아울렛, 복합쇼핑몰, 롯데마트 등 입점
초교5, 중학교2, 고교2 인접(일부 서울대 교육지원),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입점

교통 엘리트 4호선 오이도역 1km, 수인선 월곶역 3km 인접, 서해안로-군자로 및 월곶대교 확장
제3경인고속도로(정왕IC), 영동고속도로(월곶IC), 서해안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인접

수요 엘리트 시화·반월공단, 남동공단 근로자 약 38만 여명 근로자가 집중하는 풍부한 수요
배곧신도시 서울대, 아울렛 종사자 약 7280여 명, 시화MTV 약 7만여 명 고용창출



경품대잔치
- 1등 65인치 삼성커브드 TV
- 2등 LG김치냉장고 405ℓ 2대
- 3등 50인치 삼성TV 3대
- 4등 제습기 5대
- 5등 위닉스 공기청정기 10대 냉·온수매트 10개

신개념 저비용 고효율 수익형 아파텔

문의전화 1661-2032

시행 (주)로얄 / 베스트홀딩스(주) 시공 다인건설(주) 신탁 KOREA trust 코리아신탁



정부는 지난달 19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2의 중동 붐' 일환으로 '할랄식품' 수출을 2017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인 12억3000만 달러까지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연합뉴스

할랄푸드株, 주도업체 없이 혼조세

할랄 인증업체 우선 수혜… 관련 식품사 동반 성장 기대

이슬람의 '할랄(halal)'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대형 음식료 기업들의 할랄 시장 진출이 활발하다. 업계는 할랄 시장을 아직 주도업체가 없는 '블루오션'으로 판단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16일 "한국 음식료업체들은 가공·생산 기술력이 높아 할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며 "일차적으로 기존 할랄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고, 할랄 식품 시장 성장과 함께 관련 식품업체들의 동반 성장도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할랄은 이슬람의 종교적 율법에 따라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을 뜻하는 아랍어다. 이슬람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슬람 종교단체의 국제표준인 할랄 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국내 주요 업체들은 이미 할랄 시장에 뛰어들어 글로벌 업체와 경쟁을 벌이고 있다.

농심은 '할랄신라면'으로 이슬람 국가를 공략하고 있다. 이 회사의 주가는 16일 종가기준으로 전일대비 5000원(2.08%) 상승한 24만5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남양유업도 같은 해 말레이시아에 학교급식 전용 우유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주가는 16일 종가기준으로 전일대비 1만8000원(2.41%) 오른 76만6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2013년 초코파이 할랄 인증을 받은 오리온은 지난해 10월 이후 꾸준히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다. 16일 전일대비 2만6000원(2.10%) 올라 126만2000원을 기록했다. 크라운제과도 같은 해 대표 스낵제품 4종(죠리퐁·콘칩·못말리는 신짱·카라멜콘과 땅콩)에 대해 국내 제과업계 최초로 MUIS 인증을 획득했다. 올 들어 상승세에 탄력을 받은 크라운제과 주가는 16일 현재 전일보다 14만5000원(4.75%) 오른 32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빙그레도 16일 전일대비 2000원(2.43%) 오른 8만4400원을 기록, 올해 신고가를 다시 썼다.

최근에는 식품업체 전반으로 할랄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장진욱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할랄 식품 시장에 글로벌 식품업체들이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기준 세계 할랄 식품 시장규모는 1조2920억 달러로 세계 식품 시장의 17.7% 수준이고, 2019년에는 2조 5360억 달러로 세계 식품 시장의 21.2%를 차지하며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보배기자 bobae@

키움證 '글로벌 100조 클럽' 등 ELS 4종 판매

키움증권은 17일 오후 1시까지 글로벌 100조 클럽 ELS를 포함한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ELS) 3종 및 원금보장형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 1종을 판매한다.

애플과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제4회 글로벌 100조 클럽 ELS'는 3년 만기 연수익 11%추구 ELS다. 발행 후 6개월마다 조기상환기회가 주어지며, 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두 최초 기준가격의 90%(6개월, 1년, 1년 6개월), 85%(2년, 2년 6개월, 3년) 이상인 경우 최고 33%(연 수익률 11%)로 상환된다. 다만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55% 미만일 경우 하락률에 따라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지난 달 말일 글로벌 100조 클럽 ELS를 출시했을 때부터 시가총액이 100조원 이상 되는 글로벌 기업을 기초자산으로 한다는 점에서 고객의 관심을 많이 끌었다. 추구 수익률도 높은데다 기초자산인 애플과 삼성전자가 친숙하여 인기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보배기자

증권업계 "유망종목 찾아라"

스몰캡 인력 충원 등 분주



증권업계가 코스닥 활황세에 힘입어 소위 잘나가는 코스닥 업종과 새 종목 찾기에 분주하다.

코스닥시장이 가파른 상승랠리를 이어가자 유망종목을 새로 발굴하기 위해서다.

지난 15일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9.47포인트(1.38%) 오른 694.44로 마감해 7년 3개월 만에 고점을 새로 썼다. 이는 지난 2008년 1월 11일 기록한 699.2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도 186조 4000억원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연초부터 이날까지 집계된 일평균 거래대금도 전년보다 55.8% 증가한 3조700억원으로 연간 기준 최대 규모다.

전문가들은 "증권사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코스닥 종목 발굴에 나서고 있다"면서 "중소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스몰캡(코스닥의 우량중소형주) 인력 확충에도 적극적인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지난 13일까지 증권사에서 코스닥 종목에 대해 새로 커버리지를 개시한 건수는 8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커버리지란 증권사가 보고서를 내는 대상이 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일부 증권사들은 스몰캡팀을 부활시키거나 스몰캡 인력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증권은 최근 스몰캡팀을 만들고 인원 3명을 배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코스닥시장으로 더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는 다른 증권사들도 마찬가지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 인원을 소폭 확충했으며, 이트레이드도 최근 인력 3명을 충원했다. 삼성증권 역시 인력 확충이 필요할 경우, 추가 충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 참석해 "코스닥은 시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증권사에서 조사 보고서를 많이 내지 않는다"며 "코스닥 종목에 대한 증권사의 조사 보고서 비중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스닥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투자자의 신뢰를 받는 시장이 되도록 업계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수도권 주택시장 활기… 대형사 '수혜'

NH투자증권 보고서

올해부터 국내 주택시장이 수도권 위주로 활기를 보이면서 대형건설사들의 수혜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NH투자증권은 16일 '주택이슈 점검' 보고서를 통해 "2015년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신규 아파트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분양이 많은 대형건설사들의 수혜가 기대된다"가 밝혔다.

보고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지방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분양을 늘려 지방 주택시장이 개선 추세를 보였다"며 "하지만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나타난 피로감과 신규 입주물량 증가로 둔화되는 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반해 "수도권은 2010~2013년까지 4년간 양호한 가격 조정과 신규 입주물량 감소 영향으로 가격 상승폭 확대가 예상된다"며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은 건설사의 주택부문 위험 해소와 이익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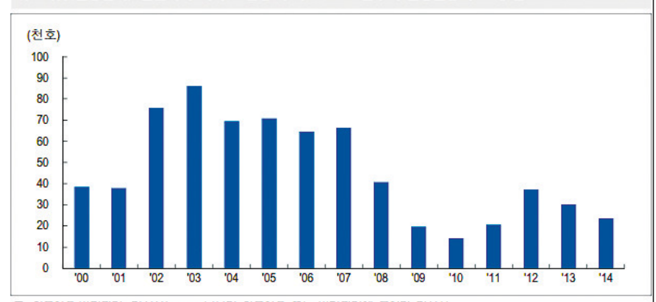
보고서는 특히 "수도권 중심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형건설사의 수혜가 클 것"이라며 "수도권은 6개 대형건설사의 점유율이 30% 내외로 높고, 대형건설사 중심 시장인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형건설사의 분양이 올 들어 크게 증가하면서 대형건설사발 공급 과잉 우려도 지적되고 있지만 보고서는 양극화 현상의 하나로 판단했다.

보고서는 "기존 20~60위권 중견건설사 중 상당수가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 주택 분양을 줄인 상태"라며 "중견건설사의 감소분을 대형건설사가 상쇄시키는 모습으로, 양극화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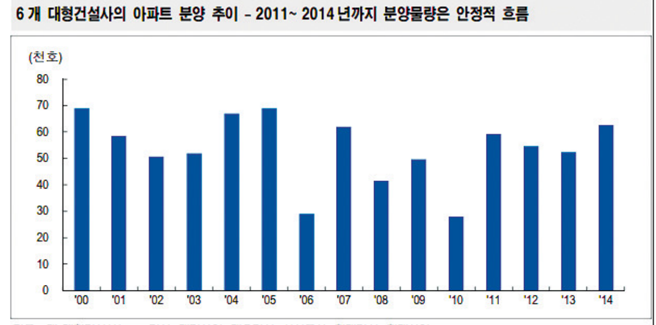
이어 "수도권 주택시장이 상승국면 초기에 있고 주변 시세로 분양가가 결정돼 미입주 리스크가 적으며, 높은 브랜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등의 이유로 지금 대형건설사의 분양물량 증가는 2016~2017년 양호한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워크아웃(법정관리)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 추이 - 2009 년부터 분양물량이 크게 감소



주: 워크아웃(법정관리) 건설사는 2009년부터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
자료: 부동산114

6 개 대형건설사의 아파트 분양 추이 - 2011~ 2014 년까지 분양물량은 안정적 흐름



자료: 6개 대형건설사는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산업

LG이노텍 'VVIP 애플' 놓치나

매출 30% 육박하는 애플 거래선 다변화 움직임에 안정적 수익창출 빨간불

전문가들 "카메라 기술력 앞세워 LG도 거래 다변화 필요"

2012년부터 꾸준히 흑자를 이끌어 내고 있는 LG이노텍이 올 하반기 최대 고객인 애플이 거래선을 다변화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모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LG이노텍의 최대 고객사인 애플이 지난 15일 소형카메라 전문기업 '링스 컴퓨테이셔널 이미징'를 인수함에 따라 애플에 카메라모듈 납품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을 담보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LG이노텍은 지난해부터 애플 아이폰6·아이폰6플러스에 800만화소 손떨림보정(OIS) 카메라모듈을 공급하면서 급성장 중이다. LG이노텍 전체 매출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은 30%가량이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LG주요계열사에 대한 매출의존도 30.7%와 비슷한 수준이다.

물론 LG이노텍이 보유하고 있는 뛰어난 기술력과 부품 물량을 원활하게 공급한다는 점에서 애플도 당장 거래를 끊을 수 없다.

그러나 애플이 차기 아이폰 모델에 링스 기술을 활용해 배경화면을 자동으로 없애주거나 3차원(3D) 이미지로 변환해주는 차세대 카메라를 탑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LG이노텍은도 다양한 거래선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11년 설립된 링스는 태블릿PC나 스마트폰용 소형 카메라 전문개발사로 링스 카메라라는 동시에 여러 이미지를 읽을 수 있도록 센서가 탑재돼 있다.

사진을 3D 이미지로 자동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이를 응용하면 인물사진에서 배경화면만 없애 스튜디오 사진처럼 바꾸거나 정확한 안면 인식 기능도 구현할 수 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7~12월) 공개가 유력한 '아이폰7'부터 이러한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IT업계 관계자는 "LG이노텍은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통해 국내외 유통망을 확대며 안정적인 매출을 이끌고 있다"며 "다만 애플과 관계에 이상징후가 발생한다면 어느정도 타격은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 최준영 연구원은 "애플이 링스를 인수한 것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LG이노텍의 매출 하락에 대한 우려는 시기상조다"면서도 "링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제품 생산 규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가 올해 새롭게 선보인 2015년형 LG가스레인지를 모델이 소개하고 있다.

"온도 감지센서 장착… 화재 걱정 마세요"

LG전자 가스렌지 5종

LG전자가 온도 감지 센서를 적용해 안전성을 높인 '2015년형 가스레인지'를 출시했다.

LG전자는 2015년형 가스레인지 고급형 2종(HB633AA, HB623AA)과 일반형 3종(HB622AA, HB622AB, HB622AC)을 시판한다고 16일 밝혔다. 고급형은 3중 펄 코팅 상판을 사용하고 일반형은 2중 코팅 상판을 이용한다.

2015년형 LG가스레인지는 각 오른쪽 화구에 불꽃의 크기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자동 불꽃 조절 시스템을 적용해 조리 중 의도치 않게 불이 꺼져 다시 켜는 불편함을 없앴다. 온도 감지센서와 화력 자동 제어 프로그램을 접목해 자동 소화 발생이 쉬운 음식물을 조리할 경우에도 안정적인 불꽃을 제공한다.

또 조리 중 음식물이 넘치더라도 가스레인지 바닥으로 세거나 내부로 스며들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실링 버너가 적용돼 국물이 넘치더라도 가스레인지 바닥으로 세지 않아 오작동을 방지한다. 용기의 바닥온도가 280℃ 이상 과열시 알람이 울리며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기능도 들어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적용해 조작부를 15도 높여 화력조절부분 조작시 손목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LG전자의 2015년형 가스레인지는 고급형 3구는 41만9000원, 2구는 32만9000원, 중·저가형은 최저21만4000~27만9000원에 판매된다. /양성운기자

LG전자 윈도폰 사진 공개

4.5~5 인치·윈도 8.1 탑재



LG전자가 윈도 운영체제(OS)를 탑재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공개됐다.

미국IT 전문지 네오윈은 15일(현지시각) LG전자가 개발중인 윈도폰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LG전자의 윈도폰 상단에는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의 로고가 새겨져 있다.

네오윈은 윈도 8.1을 탑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모바일 기기 전문 리뷰 매체 폰아레나는 윈도 8.1을 10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버전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했다.

네오윈은 해당 제품의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고 전했다.

사진 상 전면 카메라는 오른쪽 상단에 위치해있고 가상 버튼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네오윈은 화면 내 타일 크기 상 디스플레이는 4.5~5인치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임은정기자 eunj71@



삼성전자 모델들이 논현동 삼성 디지털프라자 강남본점에서 출시 1년 만에 2만대를 판매한 삼성 슈퍼 프리미엄 냉장고 '셰프컬렉션'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 '셰프컬렉션' 누적판매 2만대 돌파

삼성전자 슈퍼 프리미엄 냉장고 '셰프컬렉션'이 출시 1년만에 총 누적 판매 2만대를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2014년 3월 시판하기 시작한 셰프컬렉션 냉장고가 출시 한달에 1000대, 100일에 5000대 누적 판매량 달성에 이어 1년 만에 2만대를 판매했다고 16일 밝혔다.

셰프컬렉션은 세계적인 미슐랭 3스타 셰프들이 개발단계부터 함께 참여해 완성했다. 셰프들은 식재료 본연의 신선함과 맛을 식탁에서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셰프컬렉션'은 셰프들의 주문을 반영해 미세 정온 기술을 적용했다. ▲온도의 편차를 ±0.5℃ 이내로 유지하는 '셰프모드' ▲냉장실과 냉동실 각각의 컴프레서로 온도를 정밀 제어해주는 '듀얼 컴프레서' ▲냉장실·냉동실·참맛 냉동실에서 각각의 냉각기를 채용하는 '트리플 독립 냉각' ▲냉장실 내벽의 메탈로 냉기를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메탈쿨링 시스템' 등 온도 편차를 줄이기 위한 기술을 채용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2월 제품 높이를 7㎝ 낮춘 '셰프컬렉션' 신제품을 출시했다. 그 결과 판매량이 전년 3월 대비 2.5배 상승했다. /양성운기자

손동연 두산인프라 대표, 기계산업협회장 취임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는 16일 서울 중구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협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11회 건설기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대표이사(사진)는 제21회 협회 정기총회에서 협회장으로 취임했다.

손 회장은 취임사에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도약해 나가자"며 "회원사와의 소통 강화와 상생을 통해 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행사에서는건설기계 산업계최초로 정부포상이이뤄졌다.

전태준 태원인더스트리 회장은 국내 건설기계 부품 기술수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중국시장 개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강용식 대모엔지니어링 사장과 성종율 전라북도 산업진흥과장이 대통령표창, 공희석 두산인프라코어 전무와 윤동근 현대중공업 기원, 백일성 군산시 계장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건설기계업계가 지난 수년간의 위기를 과감한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로 극복했다"며 "건설기계산업이야말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 구현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산업이고 ICT와 융합해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양소리기자 10sound@

獨에 밀린 국산차, 대표모델로 안방탈환 나선다

<르노삼성·한국지엠·쌍용차>

르노삼성 'QM3'
물량확보로 판촉마케팅 적극

한국지엠 '다마스·라보'
국내 유일 '경상용 시장' 공략

쌍용차 '티볼리'
폭발적 시장반응에 순풍 기대



쌍용차의 소형 SUV 티볼리. /쌍용차 제공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성능을 앞세운 독일차가 위세를 떨치며 국산차를 추월하고 있다.

자리를 내준 국산 완성차업체들은 각사의 대표모델에 주력해 안방을 되찾는다는 계획이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차업체의 국내매출이 급증하면서 브랜드별 순위도 변동됐다.

내수시장 매출 1, 2위는 현대자동차(18조293억원)와 기아자동차(9조3112억원)가 각각 사수했다.

그러나 3위 자리는 2조6619억원을 기록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조5026억원을 올린 한국지엠을 대신해 들어갔다.

국내매출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한국GM을 앞지르고 빅3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5위와 6위 역시 BMW코리아(2조2999억원)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2조2045억원)가 르노삼성자동차와 쌍용자동차를 누르고 각각 차지했다.

르노삼성은 2조1250억원 매출로 7위, 쌍용차는 1조9626억원 매출로 8위에 그쳤다.

업계는 지난해 국내 완성차업체의 국내매출이 증가했지만, 수입차 브랜드는 그 이상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독일차에 자리를 내준 한국지엠과 르노삼성, 쌍용차 3사는 각사의 대표 인기모델을 앞세워 빼앗긴 안방을 탈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지엠의 효자는 경상용차인 '다마스'와 '라보'다.

올해 1분기(1~3월) 한국지엠은 내수시장 승용차 부문에서 2만3001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기(2만4388대)와 비교해 5.7% 줄어든 수치다.

캡티바, 올란도, 트랙스 등 레저용차량(RV) 판매도 8188대로 전년(8505대)보다 3.7% 줄었다.

하지만 다마스 1531대, 라보 1515대 등 경상용차 부문은 3046대 판매로 전년(1434대) 대비 112.4% 증가하며 실적을 이끌었다.

백범수 한국지엠 국내영업본부 전무는 "다마스와 라보는 국내 유일의 경상용차로 20년 넘게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다"며 "꾸준한 판매실적으로 한국지엠의 내수성장에 일조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평가했다.

르노삼성은 소형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QM3'를 내세웠다.

이달부터 르노삼성은 QM3 물량을 르노 본사로부터 월 4000대 가량 공급받아 내수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사측은 그동안 QM3가 유럽에서 인기를 끌면서 스페인 현지공장으로부터 국내물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지난해 QM3 월별 실적을 보면 선적 일자에 따라 최소 16대(2월)에서 최대 3971대(6월)의 큰 격차를 보였다.

주수연 르노삼성 마케팅담당 이사는 "QM3의 충분한 물량공급으로 보다 적극적인 판촉마케팅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최근 인기몰이 중인 간판스타 '티볼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달 쌍용차는 내수에서 7719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12월(8261대) 이후 월간 최대 실적이다.

티볼리는 1월 2312대, 2월 2898대, 3월 2827대 등 1분기 총 8037대가 팔려 이를 견인했다.

이에 힘입어 쌍용차는 지난달 수출 5151대를 포함해 1만2870대를 팔며 전월 대비 32.4% 증가한 실적을 냈다.

최종식 쌍용차 대표이사는 "1월 티볼리 출시 후 시장반응이 폭발적이라 계획보다 빠른 속도로 회사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개발 단계에서의 수요 예측보다 2배가량 오더가 들어오고 있다. 생산라인을 티볼리 확대에 초점을 맞춰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한국지엠 세르지오 호샤 사장(왼쪽)과 정종환 노조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6일 부평 어린이집을 방문했다. /한국지엠 제공

"자녀 걱정말고 출근하세요"

한국지엠
직장어린이집 개관

한국지엠은 부평 본사 부근에 직원 자녀를 위해 신축한 어린이집 개관식을 16일 열었다.

행사에는 한국지엠 세르지오 호샤 사장과 정종환 노동조합 지부장, 학부모 대표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지엠이 '다니고 싶은 회사'를 만들기 위한 활동의 하나로 신축한 어린이집은 연면적 783㎡ 규모다.

지상 4층과 지하 1층의 건물로 구성돼 만 1~5세 미취학 아동 7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건물 내에는 보육실과 도서공간, 식당, 유희실 및 옥상 놀이터 등의 시설을 갖췄다.

한국지엠은 부평 본사 어린이집 개원을 시작으로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군산, 창원 등 지방 사업장에서도 순차적으로 보육시설을 개원할 예정이다.

/이정필기자 roman@

기아차, 쏘울 전기차 100만원 할인

전기차 특별구매 프로그램
레이EV는 등록비 전액 면제



레이 전기차(왼쪽)와 쏘울 전기차. /기아차 제공

기아자동차는 서울시 전기차 민간공모 사업을 통해 쏘울EV와 레이EV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아차는 쏘울EV 구입시 고객이 ▲100만원 차값 할인(현금구매 또는 일반할부 4.9% 이용시) ▲50만원 차값 할인과 1.5% 초저금리 할부(36개월) ▲3년 동안 주행거리에 관계없이 신차 가격의 약40% 중고차 가격을 보장해 주는 전용 리스프로그램 중 한 가지 조건을 선택해 고객들이 원하는 상황에 맞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은 환경부 보조금 1500만원과 서울시 최대 보조금 500만원 등의 지원을 통해 4250만원인 쏘울EV를 최저 215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기아차는 쏘울EV의 전용부품을 10년간 16만㎞ 보증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기아차는 2013년 레이EV의 판매가격을 3500만원에 책정한 데 이어, 1.5%의 초저금리 할부 프로그램(36개월)을 새롭게 운영한다.

레이EV는 서울시 전기차 민간공모 사업의 각종 보조금 지원시 15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레이EV 구매자는 취득세, 도시철도 채권 매입 등 등록비 전액 면제와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부가세 환급 등 경차 혜택을 받게 된다. /이정필기자 roman@

토요타, 멕시코공장 건설
중국에 생산라인 신설도

토요타자동차는 멕시코 신공장 건설과, 중국 생산라인 신설을 16일 결정했다.

멕시코 신공장과 중국 신라인에는 생산조건과 환경에 따라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생산라인, 차종 변경 시 신속한 이동 및 바닥설치가 가능한 소형설비, 콤팩트한 도장 부스 등을 적용한다.

토요타는 지금까지 가급적 공장의 신설을 동결하고, 기존 공장의 능력을 활용하며, 차종 변환 시 설비 투자액 절감을 진행했다.

그 결과 기존 공장의 가동률은 글로벌 전체로 90%를 넘어서는 성과를 보였다. 공장 건물이나 설비를 중심으로 하는 초기투자는 2008년 대비 약 40%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측은 전망했다. /이정필기자

BMW 모토라드 코리아
대구전시장 확장이전



BMW 모토라드 코리아는 대구전시장을 확장해 16일 열었다.

대구 동구 공항로에 위치한 BMW 모토라드 대구 전시장(사진)은 연면적 1300㎡ (약 400평)에 지상 2층 규모다.

전시장 사용 면적 495㎡ (약 150평), 정비실 사용면적 200㎡ (약 60평)로 BMW 모토라드 국내 전시장 중 가장 크다.

사측은 신암동에 위치한 이전 전시장보다 약 3배 이상 커진 이번 전시장은 고속도로와 대구 국제공항 근방에 있어 원거리 고객들의 접근성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투어 시작과 복귀 지점으로서 효용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또 제품 전시 공간과 함께 고객 라운지, 서비스센터, 라이프스타일 제품관은 물론 130평 규모의 주차공간, 식당과 카페까지 갖춰 고객 방문 편의성이 향상됐다고 덧붙였다. /이정필기자

가스公, 이종호 사장직대… 제식구 감싸기 논란

사장 공모 차일피일 미뤄 가스公 "6월께 인선" 해명

한국가스공사 부사장 출신인 이종호 사장 직무대행(사진)이 본격적인 행보를 보인 것을 두고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올 초 공채 1호 출신인 장석효 전 사장이 30억여 원에 달하는 뇌물 수수 혐의로 해임되면서 같이 중책을 맡아 가스공사를 이끌던 이종호 부사장을 사장 직무 대행에 앉혔다는 지적이다.



공사 측이 공공 기관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지 않기 위해 사장 인선 시기를 의도적으로 연기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자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해빙기 안전점검에 나선 데 이어 이달 재난안전관리 현황 업무를 보고받고 가스안전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가스공사는 앞서 지난 2월 비상임이사 3명, 외부 추천 인사 2명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꾸려 이 부사장을 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사장 후보군이 물망에 오른 뒤 인선이 미뤄지면서 뒷말이 무성하자 서두른 모양새다.

이 부사장은 1985년 가스공사에 입사해 30년간 근무하며 잔뼈가 굵은 내부 인사다.

그는 나이지리아 가스개발사업 추진단장과 자원개발처장, 신규사업처장, 자원개발본부장을 거쳐 2013년 관리부사장을 역임하면서 장석효 전 사장과 호흡을 맞췄다.

업무적인 면에서 보면 사장 직무를 대행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가 장 전 사장 시절 끊임없이 터진 내부 비리 당시에 재임했던 인사 중 하나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은 의구심이 가질 수 밖에없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달 착수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가스공사가 사장 공모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취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공공기관 평가에서 D등급이 나와도 해임 경고를 받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사장 직무대행이 내부 인사 출신이라는 점과 사장 인선이 연기된 점 등 여러 정황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제기될 순 있지만, 의혹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감사나 해외 바이어 등을 만날 때 주인이 없으면 안 되는데, 외부 인사를 직무대행에 앉힐 수는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선임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장 인선은 6월께로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상길기자 sweatsk@metroseoul.co.kr

대우인터, 빚 쌓이는데 임원들은 돈잔치

최근 2년 부채 1조4000억 ↑ 전병일 대표이사 등 임원 성과급으로 10억 이상 챙겨

대우인터내셔널(사장 전병일)의 최근 2년간 부채가 1조4200억여원 증가했지만 전병일 대표이사 사장과 이동희 전 부회장은 성과급으로 총 10억원 이상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 삭감 등으로 회사를 살리는데 헌신해야 할 임원이 자기 배만 불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우인터내셔널은 지난해 부채총액은 6조2872억원이다. 부채비율은 293.24%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13년의 부채총액은 5조5240억원(270.75%)이었으며 2012년에는 4조8662억(241.04%)에 달한다. 2년 사이 회사의 부채는 1조4210억원(29.2%) 증가했고 250%대 부채비율은 300%에 육박할 정도로 대우인터내셔널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회사의 대표·임원들은 꼬박 꼬박 성과급을 챙겼다.

전 사장은 지난해 성과급으로 3억2700만원을 수령했으며 전년에는 영업2부문장으로서 2억6600만원을 받았다. 작년말 퇴임한 이동희 전 부회장은 작년 성과급으로 2억700만원을 수령했고 전년에는 3억200만원을 받았다.

특히 2013년의 경우,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모두 후퇴했다. 그럼에도 억대 성과급이 지급된 데 대해선 이견이 많다.

실제 이해 매출액은 전년(2012년)대비 2115억원 감소했다. 이해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38.3%나 감소한 1329억원에 그쳤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비 년도에 비해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는데 3억원 가까이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것 자체가 방만경영의 한 단면이 아닌가 싶다"며 "물론 임단협이나 자체내규에 따르겠지만 부채비율이 300%에 육박하는 회사가 그런 돈을 지급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우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상사의 특성상 해외영업이 활발할수록 매출채권(자산)과 매입채권(부채)이 동시에 잡히는 구조라 부채총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2012~2013년 미얀마 가스전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 부채가 더욱 늘어났다"고 말했다.

/송정훈기자 sjh@

한·중, 핀테크 시장확대 맞손

통신·금융기업, 업무제휴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통신과 금융 기업이 손 잡고 한-중 핀테크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선다.

LG유플러스, 차이나유니온페이 및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 KB금융그룹, KB국민카드는 16일 서울 용산구의 LG유플러스 신사옥에서 '모바일 카드 발급 및 결제 서비스 업무 제휴 협약식'을 갖고 유니온페이 모바일 카드 발급 및 결제 서비스를 공동 추진키로 했다.

협약식을 위해 거화용 차이나유니온페이 및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 동사장, 왕립신(王立新)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 부총재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들은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을 비롯해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과 만나 모바일 결제 협력을 필두로 한-중 핀테크 서비스 확대와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로 뜻을 함께 했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왼쪽부터), 거화용 차이나유니온페이 및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 동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모바일 카드 발급 및 결제 서비스 업무제휴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이번 협약으로 오는 7월부터 LG유플러스와 KB국민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유니온페이 브랜드가 탑재된 모바일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모바일카드를 발급받은 국내 고객은 중국 방문 시 중국 내 500만여개 유니온페이 단말기에서 근거리무선통신 방식(NFC 방식)의 모바일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국내 가맹점에는 연내에 LG유플러스가 NFC 방식의 결제단말기를 보급하여 국내에서도 모바일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결제 서비스를 공동 제공할 계획이다. /정문경기자 hm0108@



KT는 최근 서울 중랑구 노인들을 대상으로 '안부 알림 tv 프로젝트' 설치와 상담을 했다. /KT 제공

홀몸노인 안전 '올레TV'가 지킨다

KT '안부알림tv 프로젝트'

가족이나 보호자 없이 홀로 살며 각종 사고에 노출된 노인들의 안전보호를 위해 KT가 '안부 알림 tv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에 혼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범 운영 중인 '올레tv 안부알리미'를 이용하면 IPTV 서비스인 올레tv가 켜지거나 24시간 이상 작동되지 않을 경우 지정된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신돼 TV 이용자의 안부 확인이 가능하다.

KT는 이 서비스를 활용한 노인들의 보살핌을 지원한다. 임자면사무소와 협력해 이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 가구에 올레tv 안부알리미를 무료로 설치하고 운영키로 했다.

임자도는 KT가 기가 인프라와 ICT 솔루션으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취지로 기획 구축된 '기가아일랜드' 적용 지역이다.

신훈주 KT 마케팅부문 IMC 담당 상무는 "올레tv의 업계 선도적 이미지 제고와 함께 혼자 사는 노인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문경기자

대한상의, 자발적 사업재편 기업에 지원 요청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유도하고자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현재 기업이 재무적으로 어려워진 후 기업회생을 돕는 통합도산법이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사후관리 측면이 커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게 대한상의의 판단이다.

때문에 선제적으로 기업이 사업재편을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원할 경우, 정부가 타당성을 검토한 뒤 승인되면 기업에 세제·금융 지원, 인수합병(M&A) 절차 완화 등 패키지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16일 '사업재편지원제도 구축방안 건의문'을 정부·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사업재편지원제도를 마련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 구조개편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정훈기자

정용진 야심작 '상생 편의점' 고전

'위드미' 점포수 500개… 목표 절반 불과
"PB상품 부족·'3無정책' 큰 매력 못느껴"





/편의점 위드미.

신세계(부회장 정용진·사진)가 야심작으로 내놓은 편의점 사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 1위지만 편의점 사업에서는 CU·GS25·세븐일레븐 등 선두업체들에 비해 시스템이나 마케팅 측면에서 역량이 못 미친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점주들도 점포 개설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좀처럼 매장수를 늘리고 못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2013년 12월 '위드미'를 인수하고 지난해 7월부터 상생을 강조하며 편의점 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신세계는 로열티·위약금·24시간 영업이 없다는 '3무(無) 정책'으로 가맹점주 모객에 나섰지만 위드미 점포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00개 정도다. 기존 점포 87개를 제외하면 414개의 점포를 늘렸다. 이는 신세계가 편의점 사업을 시작하면서 밝힌 연내 1000개 목표의 절반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GS25가 516개를, CU가 469개를 늘린 것을 감안하면 대형마트 업계 1위 사업자라는 명성이 무색하기만 하다.

위드미의 점포 증가 속도가 더딘 이유에 대해 업계는 생존 경쟁에 놓인 점주에게 3무(無) 정책이 크게 어필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편의점 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은 어느 지역에나 편의점이 여러 개인 상황에서 점주들은 매일 생존 경쟁에 놓여 있다"며 "위드미가 제시한 3무 정책에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쟁사 대비 구색이나 가격면에서 떨어지는 신선식품과 PB(유통사 자체 브랜드) 제품도 문제로 지적된다. 편의점은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품가격이 높기 때문에 가맹점주는 수익성 보전을 위해 이익률이 높은 PB상품이나 신선식품을 판매를 늘려야한다. 위드미는 이런 점에서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얘기다.

또 다른 편의점 관계자는 "위드미가 아직 시작하는 단계라 그럴 수 있지만 PB상품 구색이 크게 떨어진다"며 "당장은 하나의 상품이고 소액일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상품이 없으면 소비자는 오지 않게 돼 있다. 이런 소비자 마음을 알고 있는 가맹점주의 경우 위드미를 오픈하거나 갈아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위드미 점포는 지난해 말 500호점이 넘었고 현재 출점 수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롯데마트, '경기 시금치 1단에 880원' 16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이 시금치를 고르고 있다. 롯데마트는 오는 22일까지 전 점에서 '경기 시금치(1단)'를 880원에 판매한다. /롯데마트 제공

CJ, 간편식 시장에 '밥'으로 승부

'햇반 컵반' 출시



CJ제일제당(대표·김철하)이 최근 성장세를 타고 있는 간편대용식(HMR)시장에 햇반을 앞세워 '밥'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CJ제일제당은 햇반을 넣은 컵밥 제품인 '햇반 컵반'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햇반 컵반은 햇반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밥의 맛을 확보하고 국 맛을 살릴 수 있는 액상 소스를 활용했다. 고제형 건더기 블록을 뜨거운 물에 풀어 먹는 방식이 대부분이던 기존 국밥류와 차별화했다.

제품 라인업도 순두부찌개국밥·미역국밥·사골곰탕·황태국밥의 네 가지로 구성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조리시간은 전자레인지엔 4분, 끓는 물엔 1분 30초로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의 제품으로 든든한 한끼를 즐길 수 있는 '원 밀 솔루션(One-meal solution)'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은 1인 가구와 캠핑 등 아웃도어 인구의 증가세, 각종 요리 방송 프로그램의 인기에 따른 미식 문화 확산이라는 기회를 활용해 햇반 컵반으로 올해 15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김보라기자 bora6693@

동아오츠카, 온라인 직영 쇼핑몰 새단장

선물 시스템 등 도입

동아오츠카(대표 이원희)가 16일 온라인 직영 쇼핑몰 '동아오츠카몰'을 리뉴얼 오픈했다고 밝혔다.

동아오츠카몰에서는 포카리스웨트, 오로나민C, 데미소다, 오란씨 등의 다양한 제품을 더욱 쉽고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매일 구매하기 힘든 생수 등을 정기구매·선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홈페이지에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도 있다. 동아오츠카몰은 오픈 이벤트로 이달 30일까지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3만원 상당의 포카리스웨트 공식타올을 증정한다.

주재현 동아오츠카 홍보팀장은 "최근 온라인몰의 활성화로 쇼핑 습관까지 바뀌는 요즘 무거운 음료군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채널"이라며 "동아오츠카몰은 추세에 맞춰 소비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쇼핑몰 운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minus@

롯데 백화점, 14년만에 '노마진' 세일

봄신상품 100개 품목 19일까지 최대 60% 할인



롯데백화점이 봄 정기세일 마지막 3일, 굳게 닫힌 소비자 지갑을 열기 위해 노마진 상품전을 연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17~19일 모든 매장에서 남성패션·스포츠·아웃도어·골프 상품군의 봄 신상품 100개 품목을 10~60% 할인 판매한다. 롯데백화점이 노마진 세일에 나선 것은 지난 2000년대 초 이후 거의 14년 만이다.

브리오니·제냐·꼬르넬리아니·아르마니·휴고보스 등 남성 명품 브랜드와 닥스·마에스트로·듀퐁셔츠·블랙야크·보그너 등 50여개 유명 브랜드가 행사에 참여한다.

17~19일 서울 컨벤션센터 세텍(SETEC) 제3전시관에서는 10~12일 1차에 이어 2차 '블랙쇼핑데이' 행사가 열린다.

이 쇼핑박람회에는 220여개 골프·여성·잡화 브랜드가 참여, 100억원어치의 패션상품을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한다.

전점 식품관과 가전매장에서는 '5대 파격가 줄서기 상품'을 최대 절반가에 선보인다.

'한우 1등급 국거리(100g)' 2200원, '전복(4미)' 9500원, '오징어(3마리)' 2000원,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25만9000원, '덴비 임페리얼블루 브런치세트' 7만9200원 등을 점포별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이완신 마케팅부문장은 "카드 수수료 등은 백화점이 부담하는 만큼 사실상 팔면 팔수록 손실을 보게 되는 셈이지만 봄 정기세일 마지막 주말에 매출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노마진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2015.5.2 (토) 2PM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지휘 **서희태** 연주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주최 사단법인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Millennium Symphony Orchestra **티켓** R 4만원 S 3만원 A 2만원

예매 SAC싹Ticket 02-580-1300 인터파크 1544-1555 **공연문의** 02-6292-9370

봄 맞은 아웃도어 '통풍' 전쟁

통기성 강조 재킷 출시
빠른 습기 배출, 체온 유지



봄 시즌을 맞은 아웃도어 업계가 통풍 기능을 강조한 신제품 재킷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겨드랑이 부위에 기능성 망사 소재를 사용하거나 지퍼를 달아 통풍과 발수 기능을 하는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

방풍 기능에 집중한 바람막이 재킷의 경우 옷 속 열기와 습기가 배출되지 않아 땀이 쉽게 차는 반면, 통풍 기능을 추가하면 빠른 습기 배출과 체온 유지가 가능하다.

네파가 주력 상품으로 선보인 '하이브리드 재킷'은 방수·방풍 소재가 부위별로 혼합된 제품이다. 특히 통풍이 잘 되는 메시 소재를 소매 하단과 겨드랑이 라인에 사용했다. 남성용인 '누오보 하이브리드 프린트 재킷'과 여성용인 '벤트 하이브리드 프린트 재킷' 두 디자인으로 출시됐다.

몽벨의 고어텍스 재킷 '서밋'은 암홀에 지퍼 방식을 적용한 A/V(Air Ventilation·통기) 시스템으로 습기와 열기가 효과적으로 방출되도록 했다. 고어텍스 프로 프로덕트 3L을 사용해 방수와 투습 기능도 갖췄다.

코오롱스포츠의 '히말라야'는 겨드랑이 부분에 지퍼 벤틸레이션을 구성해 통기성을 강화한 여성용 3L 프로쉘 최전문형 재킷이다.

라푸마가 주력 상품으로 출시한 '헥사곤 고어텍스 재킷' 역시 겨드랑이 아래에 지퍼를 달았다. 산행 시 땀이 나더라도 겨드랑이 밑의 지퍼를 열 수 있어 재킷을 벗지 않고도 체온 유지가 가능하다.

컬럼비아의 '서머 솔리튜드 재킷'은 벤트 시스템을 적용해 재킷 안팎의 통기·통풍성을 강화했다. K2는 땀이 쉽게 차는 겨드랑이 부분에 통풍구를 만든 '플라이워크 W/S 재킷'을 출시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스타킹 "커피색 지고 살색·검정 뜬다"



최근 여성들은 커피색 스타킹보다는 살색 또는 검정색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비비안이 3월 한 달간 스타킹 색상 별 판매량 비중을 살펴본 결과 '살색'이라고 부르는 누드베이지와 검정색이 각각 35% 씩 차지했다. 반면 커피색은 17% 에 그쳤다.

지난 6년간 3월 판매량 추이를 보면 커피색은 2010년 27%, 2011년 26.1%, 2012년 25.6%, 2013년 18.8%, 2014년 14.8%로 매년 줄었다. 올해는 전년 보다 소폭 늘었지만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적었다.

반면 누드베이지는 2010년 26%에서 올해 35%로 증가했으며 2010년 28%였던 검정색 역시 올해 35%로 비중이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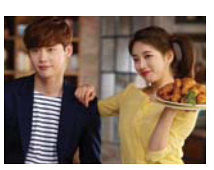
커피색 판매량이 줄어든 것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패션에 대한 선호도가 스타킹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소비성향으로 '살색'스타킹의 색상 종류도 다양해졌다. 비비안은 올 봄 누드·라이트베이지·소프트베이지·누드베이지 등의 미세한 톤의 변화를 준 4종의 살색 스타킹을 출시했다.

비비안 레그웨어팀 서동진 대리는 "패션 전반은 물론이고 메이크업도 과장되고 튀는 스타일은 피하고 최대한 있는 그대로에 가까운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향은 스타킹에도 예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BBQ, 신메뉴 인기에 창사후 최대 매출



제너시스그룹(회장 윤홍근)은 치킨 프랜차이즈 BBQ의 올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0% 늘어나는 등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BBQ는 또 지난 2월, 창사 이래 월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대비 50% 이상 신장된 수치다.

BBQ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신메뉴를 연달아 출시, 모두 히트시켰다. 지난 1월 '치즐링'에 이어 2월 '허니갈릭스'를 출시했으며 두 제품의 판매 비중은 BBQ 전 메뉴 중 20%를 차지하고 있다.

3월 출시된 '베리링'도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며 봄철 나들이 메뉴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BBQ측은 설명했다.

'총수 부재' CJ 소폭 임원 인사

성과주의 입각, 글로벌 부문 등 현장 위주 13명 승진



CJ그룹(회장 이재현·사진)은 신임 임원(상무대우) 13명을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16일 밝혔다.

CJ그룹은 통상 연말 연초에 20~30명의 신임 임원을 포함한 90여 명 규모의 정기임원인사를 단행해 왔으나, 올해는 그룹 최고경영자(CEO)인 이재현(56·사진) 회장의 장기 부재로 정기인사가 지연돼 왔다.

CJ그룹은 "그룹 총수부재의 위기 상황임을 감안해 영업·생산·글로벌 등 성과가 확실한 현장 위주로 최소한의 신임임원 승진 인사만 하게 됐다"며 "기존 임원들에 대한 승진과 이동 인사는 이번에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신임 임원 13명 가운데 5명이 글로벌 사업 부문에서 배출됐다는 점이다. CJ관계자는 "경영위기 속에서도 2020년 매출 100조원, 해외 비중 70%라는 '그레이트 CJ' 달성을 위해 글로벌 사업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여성임원은 CJ오쇼핑 TV사업본부 뷰티사업부 김경연 상무대우(43)와 CJ E&M 미디어솔루션본부 전략기획담당 최수경 상무대우(44) 등 2명이다.

<CJ그룹 2015년도 신규 임원>

■ CJ제일제당△생물자원사업부문 인니사료사업부장 이태기 △생산총괄 소재제분공장장 김경호 ■ CJ프레시웨이 △영업2본부 기업식재SU장 홍순일 <CJ푸드빌> △중국법인 사업개발담당 고희석 ■ CJ대한통운 △CL1본부 영업1담당 권호생 △CL2본부 운영1담당 차화선 ■ CJ오쇼핑 △TV사업본부 뷰티사업부장 김경연 △글로벌사업본부 천천CJ법인장 문영운 ■ CJ E&M △방송콘텐츠부문 매체사업본부장 김종선 △미디어솔루션본부 전략기획담당 최수경 △미국 사업총괄 이상훈 ■ 해외지역본부 △중국본사 대외협력담당 배재민 ■ CJ주식회사 △재무팀 재무운영담당 신종환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식품업계는 벌써 '여름맞이' 경쟁

기온이 높아지고 바깥 활동이 늘면서 여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식품 업계의 경쟁이 벌써부터 뜨겁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풀무원식품의 생라면 브랜드 '자연은 맛있다'는 최근 메밀을 이용한 여름철 별미 '황태 메밀 막국수'와 '한그릇 메밀 냉소바'을 출시했다. 황태 메밀 막국수는 기름에 튀기지 않은 구수하고 쫄깃한 메밀 면발에 고춧가루로 만든 다대기 양념장을 넣어 매콤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비빔면이다.

농심은 2008년 출시돼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온 '둥지 물김치냉면'과 '둥지 비빔냉면'의 국물 맛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새로운 제품을 내놓았다.

두 제품의 면발은 다시마 분말을 넣어 냉면 특유의 쫄깃한 식감을 강화했다. 배추와 무·표고버섯·당근·미나리·마늘·생강·대파에 사과를 넣어 발효시킨 물김치 국물을 추가한 육수와 비빔장이 특징이다.

해태제과는 주력 제품인 부라보콘을 앞세워 한 발 빨리 여름 고객들의 입맛을 공략에 나섰다. 이를 위해 '4가지 맛 부라보콘을 찾아라!' 이벤트를 진행한다. 부라보콘 4종의 상단 뚜껑 안쪽에 표시된 '당첨' 문구를 확인하면 경품을 증정하는 행사이다. 당첨자에게는 LG 노트북, 아이폰6, 돌체구스토 피콜로(커피머신)를 증정한다.



카페베네는 여름 스페셜 메뉴 커피 본연의 향과 깔끔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더치커피 메뉴 3종을 출시했다. 더치커피를 더욱 부드럽고 가볍게 만든 더치아메리카노와 부드러운 우유를 듬뿍 넣어 라떼로 만든 더치시나몬라떼, 시원한 민트향, 달콤한 초콜릿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더치민트모카를 선보였다.

크리스피 크림 도넛은 '레드자몽 푸딩 스무디'과 '라임 그레이프 푸딩 스무디' 음료를 선보이고 8월까지 한정 판매한다. 더불어 겹겹이 쌓은 토핑으로 한입 한입 달라지는 맛을 느낄 수 있는 '레드빈 미드나잇', '망고 선라이즈', '베리 선셋' 빙수 3종도 선보였다. /김보라기자 bora6693@

'동원 통단팥' 3종 출시



동원F&B(대표 박성칠)가 '손주를 위한 할머니의 정성을 담아'라는 프레임을 걸고 '동원 통단팥'3종을 출시했다. 동원 F&B는 팥알갱이를 담은 '동원 통단팥'과 함께 국내산 밤과 고구마를 첨가한 '동원 밤통단팥', '동원 고구마통단팥'을 함께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동원 통단팥' 3종은 자체 개발한 가마솥 공법을 사용해 팥 향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능성 내의 '쿨팩트'



이랜드가 전개하는 SPA(제조·유통·판매 일괄) 브랜드 스파오가 기능성 내의 라인 '쿨팩트'를 출시했다.

쿨팩트는 소재 자체가 차가운 냉감 원단(소프트쿨 아이스 원사)을 사용하고 쿨 가공기법으로 제작됐다. 극세사 소재로 질감이 부드럽고 매끄러워 땀이 나도 달라붙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피부막처럼 얇고 가벼운 초경량 소재인데다가 스트레치성이 뛰어나 활동성이 좋고, 스킨 컬러의 면 스판을 덧대어 피부보호는 물론 착용시 비침을 예방한다.

닥스, 가정의달 이벤트



LF(대표 구본걸)의 닥스 레이디스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이벤트를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2015년 봄 상품 스카프 또는 가방 구매와 함께 의류 제품을 동시에 구매할 경우 5만원 할인해준다.

LF 몰에서는 17일부터 26일까지 MD 추천 닥스 체크 제품 시리즈를 판매한다. 스페셜 라인 상품 세트 구매 시 바로 사용 가능한 5만원 금액권 발급해준다.

테마가있는치과 홍진영 원장이 전하는 '올바른 치아교정' 팁

"MTA 교정으로 활짝 웃으세요"



무작정 성형·라미네이트 아깝고 위험할 수있어 브라켓 작은 'MTA' 심미성 좋고 기간도 짧아

올바른 치아교정 무엇이 좋을까?

봄을 맞아 여기저기에서 꽃구경이 한창이다. 꽃구경을 갔을 때 꼭 빼놓지 말아야 할 일은 바로 꽃과 함께 활짝 웃는 추억만들기 사진 촬영이다. 그런데 문제는 환하게 웃고 싶어도 그렇게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처럼 답답하고 불편한 현실은 당사자에게 늘 서운하기만 하다.

대부분 늘 바르고 고른 치아 그리고 얼굴에 맞는, 마치 디자인을 한듯한 치아를 선호하지만 꼭 한두 개의 치아로 인해 신경이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패션의 완성인 얼굴 그리고 얼굴의 완성인 예쁜치아를 만들 수 있을까? '테마가있는치과' 교정전문의 홍영민 원장으로부터 답을 들어보자.

무리한 치아성형과 TV매체에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 라미네이트가 정답은 아니다.

홍 원장은 "라미네이트는 치아를 삭제하여 마치 네일아트처럼 얇은 인공치아모형을 붙여 치료하는 시술이다. 멀쩡한 치아를 단순하게 심미적인 이유로 삭제하는 것은 아깝고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정석대로 치아를 예쁘게 하는 것을 치아교정 치료라고 한다. 치아교정 종류는 바로 치료방법과 환자의 치아상태에 따라 종류가 달라진다.

홍 원장은 "단순하게 생각해 앞니 몇 개만 살짝 고르게 펴고 이동만 하면 되는데 굳이 나머지 치아까지 교정 브라켓을 붙여야 하는지라는 질문을 환자들이 많이 한다.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교정이 바로 MTA(Mini Tube Appliance)교정이다. MTA교정의 장점은 일단 간단하다는 거다. 6개월 정도면 치료가 완성이 된다. 일반 교정은 조금 투박하고 크기 때문에 입안이 헐 수 있고 그로 인해 상처까지 생길 수 있다. MTA치아교정이 그 부분을 해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고 설명했다.

MTA교정은 브라켓이 워낙 작고 심미성이 뛰어나며 튜브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치아교정 시 입을 다물고 있어도 입이 조금 튀어나오는 일반 교정과는 다르게 거의 티가 나질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입안의 상처나 이물감이 적고 철사 즉 와이어와의 마찰이 적어 치아이동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

때문에 앞니와 아랫니의 치아이동 만을 하게 되어 치아교정을 할 때 쉽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삐뚤어진 앞니를 조금만 움직여도 정상 치아배열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MTA치아교정은 6개월이면 충분히 마무리 된다.

홍 원장은 "환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바로 치아교정을 해야하나 수술을 해야하나"라면서 "치아교정을 하자니 2년이 넘을 수도 있는 기간 때문에 힘이 들고 불편할 것 같고, 수술을 하자니 일단 너무 무섭고 어떤 치료가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한다.

무엇이 좋을까?

홍 원장은 수술은 정말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특히나 양악수술 또는 악관절수술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수술밖에 안된다고 하는 경우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치아교정을 통하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치료가 가능하다고만 한다면 꼭 수술이 아닌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아교정은 충치치료처럼 몇 회의 내원으로 끝나는 치료가 아니다. 길게는 2년 반, 짧게는 3개월 이렇게 장기치료가 필요한 치료다. 그렇기 때문에 끈기와 성실함이 필요한 치료다. 주의할 점은 한 달에 한번씩 병원에 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정이 끝난 후 관리가 더 중요한 치료가 치아교정이다. 치아교정이 끝난 후 유지장치를 잘 하지 않고 소홀히 생각하면 나중에 치아교정을 다시 해야하는 등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렇다면 치아교정치료병원의 선택기준은 무엇일까? 요즘 치아교정치과를 선택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홍 원장은 "너무나 많은 광고와 이벤트로 환자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비용이 저렴한 치과만 찾다 보니 점점 광고만 많이 하는 치과만이 유명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치아교정은 반드시 꼭 교정전문의 의료진의 치료가 진행되어야 한다" 고 강조한다. 즉 치아교정이 빨리 끝나는 치료가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다.

누구나 예쁜이를 선호하고 밝은 미소를 희망한다. 지금 나도 모르게 말을 할 때나 웃을 때 그리고 매 순간 손으로 입을 가리기 바쁘다면 이제 용기를 내자. 더 이상의 부끄러움과 어색함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쉐라톤인천 "어린이날엔 딸기랑 노올자~"

'딸기가 좋아' 이벤트



송도국제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쉐라톤 인천 호텔이 어린이날을 맞이 '딸기가 좋아'와 함께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쉐라톤 인천 호텔의 쉐프가 정성스레 준비한 뷔페를 즐기며 '딸기가 좋아'에서 선보이는 딸기 키즈 타투, 옵 아트 등 다양한 체험놀이를 할 수 있다. 또 나만의 목걸이와 요요를 직접 제작하고 딸기와 함께 기념촬영도 할 수 있다.

'딸기가 좋아'와 함께하는 어린이날 이벤트는 3층 그랜드 볼룸에서 5월 5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즐길 수 있다.

가격은 어린이 3만6000원, 어른 6만5000원이다. (세금 및 봉사료 포함) 예약 및 문의는 032-835-1702.



영화 보고 프로포즈 하고… 풀코스 데이트

스탠포드호텔 서울 시네마 패키지 2종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서울이 봄을 맞아 가까운 도심에서 영화관 데이트를 즐기며 호텔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패키지 2종을 선보인다.

'라이프 애즈 시네마' 패키지는 도심에서 문화 생활을 즐기며 호텔에서 여가를 보내기를 바라는 고객에게 적합한 패키지이다.

CGV 상암에서만 이용 가능한 2인 영화관람권과 미니팝콘 또는 CGV 골드클래스 2인 관람권과 웰컴 메뉴가 선택사항으로 제공된다. 객실 1박에 조식 뷔페 2인, 와인 & 치즈 룸 서비스, 몰튼브라운 바디세트가 기본 구성으로 포함됐다.

가격은 CGV 영화관람권 제공 기준 22만 3000원, CGV 골드클래스 관람권을 이용할 경우 27만 5000원이다.

'프러포즈 데이' 패키지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로맨틱한 프러포즈를 하기를 원하는 남성 고객에게 안성맞춤인 패키지이다.

고객이 준비해온 프러포즈 이벤트를 연출할 수 있는 CGV 상암 골드클래스를 30분 기준으로 빌려 준다. 주니어 스위트 룸 1박, 조식 뷔페 2인, 와인 & 치즈 룸 서비스, 몰튼브라운 바디세트가 기본 구성으로 포함됐다.

이벤트 영상 요청 시 스크린 상영이 가능하며 프러포즈 대관 상품은 사전 예약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가격은 프러포즈 대관 30분 기준 40만5000원. 문의 (02) 6016-0001.

/정은미기자 21cindiun@

Vital Beauty '슬리머' 업그레이드



최근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아모레퍼시픽(대표 서경배)의 뷰티푸드 브랜드 '바이탈 뷰티(Vital Beauty)'의 '슬리머'가 더욱 강력한 효능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Vital Beauty의 '슬리머'는 ▲복부지방을 비롯한 ▲체중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허리·엉덩이 둘레비 ▲내장지방 ▲피하지방 ▲체지방률 ▲체지방량의 총 9가지 황금바디라인을 위한 신체지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슬리밍 앰플이다.

아모레퍼시픽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허 원료 'APIC 대두배아추출물'이 체내 체지방 분해 리듬을 활성화시켜 체지방 감소와 탄력 있고 균형 잡힌 바디라인을 가꿀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장내 유익균 생성과 유해균 배출에 도움을 주는 후발효녹차, 황금발효추출물 등을 부원료로 함유해 장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점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슬리머'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풍부한 식이섬유(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도 원활한 배변활동에 도움을 준다. 용량도 기존 20㎖에서 25㎖로 25% 증가해 경제적이다.

Vital Beauty의 '슬리머'는 전국 아리따움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연미란기자 actor@

동국제약 피부 노하우, 홈쇼핑서 통했다

'마데카크림' 매진



동국제약(대표이사 이영욱)의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CENTELLIAN) 24'의 대표 제품인 '마데카크림'이 GS홈쇼핑 1차 판매에서 매진을 기록했다.

동국제약은 이달 6일 GS홈쇼핑을 통해, '센텔리안24 마데카 크림' 50㎖ 3개, 15㎖ 1개, 1㎖(증정용 샘플)로 구성된 상품을 최초 판매해 전량 매진을 기록했다. 소비자들의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지난 15일 오후 11시50분에 GS홈쇼핑에서 동일한 구성의 세트상품을 다시 판매했다.

'센텔리안24'는 45년간 마데카솔을 생산하며 연구에 주력해 온 동국제약의 노하우가 집약된 고기능성 화장품 브랜드이다.

동국제약은 맑고 깨끗한 피부를 자랑하는 배우 윤정희 씨를 센텔리안24의 광고모델로 선정하고 브랜드를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제품구성을 핸드크림, 바디크림 등 바디라인과, 클렌징, 토너, 에센스 등 페이스 라인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메이플스토리 역사 한눈에"

넥슨, 내달 2~3일 전시회
인터파크서 예매권 판매

넥슨은 인기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전시회 '메이플스토리 展: The MAY.Full'을 공개하고 예매권 판매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다음달 2일, 3일 이틀간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메이플스토리의 캐릭터, 스토리, 역사 등 전반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행사다.

넥슨은 주요 영웅 별 스토리를 담은 메이플 히어로즈, 12년간의 다양한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메이플 기네스, 게임 속 콘텐츠를 그대로 구현한 블랙헤븐 등 각양각색의 전시관을 운영한다. 메이플 마켓에서 쿠션 등 한정판 기념품도 판매한다.

황선영 메이플스토리 디렉터는 "게임을 넘어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보여주고자 공들여 준비했다"며 "12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메이플스토리의 미래를 그리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매권은 16일 오후 8시부터 온라인 티켓 판매 사이트 인터파크(https://i.nx.com/PU)에서 구매 할 수 있다.

메이플스토리 展: The MAY.Full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maplestory.nexon.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문경기자 hm0108@

'제노니아S' 2차 글로벌 비공개 테스터 모집

글로벌 2차 비공개베타테스트(CBT)에 돌입하는 게임빌 신작 '제노니아S'.

게임빌은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ORPG)인 제노니아S의 글로벌 2차 CBT 참여자 모집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제노니아는 전 세계 5000만명이 선택한 RPG(유저가 게임 속 캐릭터들을 연기하며 즐기는 역할 수행게임) 시리즈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통한 유명 IP라는 점에서 글로벌 팬들도 주목하고 있다.

게임빌은 오는 21일까지 2차 CBT 참여자를 모집하고 일주일 간 게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글로벌 테스트에 들어간다. 대대적인 세몰이를 위해 이번에는 한국어를 포함 영어, 일본어, 중국어(간체, 번체) 등 5개 언어를 지원하며 참여자 전원에게 정식 오픈 시 게임 머니 100젠(ZEN)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노니아S는 글로벌 타깃 신작으로 기존 5개 시리즈의 노하우가 응축된 게임이다.

짜임새 있는 스토리 구조와 실시간 액션, 풍부한 콘텐츠가 돋보이는 MORPG로 'PvP 대전', '보스레이드' 등 다양한 경쟁 요소가 유저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 게임은 상반기 중 서비스될 예정이다.

테스터 참여는 CBT 모집 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정문경기자

네오플, '사이퍼즈' 2015 액션토너먼트 공개

'2015 액션토너먼트'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한다.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은 전면 개편된 '2015 액션토너먼트 던전앤파이터&사이퍼즈'의 사이퍼즈 부문 경기 및 하부리그 방식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액션토너먼트 본선에 진출하기 위한 하부리그가 승격제로 변경된다. 브론즈 등급 이상(RP 1500 이상)의 유저라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챌린지리그'에서 32개팀을 선발해 'BJ 슈퍼매치'를 진행해 최종 8개팀을 선발한다.

본선 경기방식을 패자부활전이 포함된 토너먼트 방식인 '더블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DET)로 변경했다. 승자조의 패자는 패자조에서 한 번 더 경기를 치르게 되어 기사회생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네오플은 다음달 2일부터 7월 18일까지 본선 진출을 위한 챌린지리그를 진행한다. 매주 수요일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모집하며 토요일마다 온라인을 통해 경기를 진행하게 된다. BJ 슈퍼매치에 진출할 32개팀에는 팀 당 100만 테라(게임재화)를 지급한다.

2015 액션토너먼트 및 챌린지 리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이퍼즈 공식 홈페이지(http://cyphers.nexon.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문경기자

웹젠 뮤·넥슨 탑탱·스텔라, 한국 상륙

'中빅3' 드루와 드루와~

중국 시장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던 인기게임들이 속속 한국 시장을 강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넥슨이 서비스하는 '탑오브탱커'와 웹젠의 '뮤오리진', 스텔라사가가 출시했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중국 월매출 351억원을 기록중인 '뮤오리진'(전민기적)은 웹젠이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넥슨이 내놓은 모바일 RPG '탑오브탱커'는 카카오 게임하기에서 다운로드를 늘리고 있다. 이 게임은 중국 시장에 출시된 이후 34시간 만에 현지 애플 앱스토어 인기·매출 순위 1위를 석권하며 화제를 모은 '마스터탱커2'의 한국어 버전이다. 넥슨이 이 게임의 국내 서비스 판권을 확보했다는 소식 자체가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탑오브탱커'는 사전예약 이벤트 참여자만 60만 명 이상이 몰렸다. 웹젠의 '뮤오리진'은 사전예약 이벤트 하루만에 20만 명의 참여자를 모으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여기에 중국 앱스토어 매출 순위에서 한 달간 1위를 차지했던 '스텔라사가'는 넷마블게임즈가 한국 출시를 앞두고 사전예약을 진행 중이다.



'뮤오리진'은 PC온라인게임 '뮤'를 소재로 개발된 모바일게임으로, 중국에서 지난 2014년 12월 '전민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어 각종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었다. 월 평균 매출액은 2억위안(약 351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개발사 천마시공과 웹젠은 현재 '뮤오리진'의 현지화작업을 진행중이다. 언어뿐만 아니라 인터페이스와 유료화모델 등 다양한 요소들을 한국에 맞게 수정 중이라고 한다.

중국에서 한달간 각종 순위 1위를 기록했던 '스텔라사가'는 넷마블게임즈가 카카오 게임하기를 통해 한국에 출시한다.

'스텔라사가'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세계관에서 비행전투를 즐길 수 있는 비행 어드벤처 게임으로 넷마블게임즈는 "화려한 그래픽, 쉬운 조작법, 다양한 성장요소, 풍부한 전투 콘텐츠 등이 특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게임은 지난해 '뇌정전기'라는 명칭으로 중국과 대만에서 서비스를 시작 한 후 누적 다운로드 1억5000만건을 돌파하고 중국 애플앱스토어 무료 다운로드 및 매출 순위에서 한 달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김종훈기자 fun@metroseoul.co.kr

넷마블, 온라인 '마구마구' 배틀모드 추가

넷마블게임즈는 누적회원 수가 1000만명이 넘는 국내 1위 PC야구게임 '마구마구'에 배틀모드 시스템을 추가하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한 '배틀모드'는 각 이용자가 보유한 선수카드로 구성된팀과 타 이용자 팀들과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순위경쟁을 하는 모드다.

배틀모드는 이번달 16일부터 7월 1일까지 한 달 간격으로 세 번에 나눠 진행된다. 가장 많은 승점을 획득한 1위부터 10위까지의 이용자에게는 고급아이템 및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다.

초반부터 치열한 순위 경쟁으로 한 껏 달아오르고 있는 2015 프로야구의 열기를 마구마구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도록 클럽 및 홈런더비 대항전도 마련했다.



클럽대항전은 오는 26일까지 클럽장이 대회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다음달 27일까지 진행되는 예선전 기간 동안 가장 승률이 좋은 상위 16개팀이 6월 21일에 있을 본선에 진출한다. 대항전에서 우승한 클럽에게는 상금 300만원을 지급하며 본선대회에 참가한 클럽의 모든 구성원에게 10만거니(게임재화)을 지급한다.

홈런더비 대항전은 마구마구를 즐기는 모든 이용자가 계정당 1회에 한 해 신청할 수 있다. 1등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되고 본선대회에 참가자 전원에게는 10만거니와 BIG5 구매권이 지급된다.

마구마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http://ma9.netmarble.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문경기자

'째깍째깍' 초침소리 주요 자극제

뮤지컬 '데스노트' 연출가 쿠리야마 타미야

글자만 적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신의 책 '데스노트'. 흔히 흑과 백 중 죽음과 어울리는 색깔을 고르라면 검정을 택하지만 뮤지컬 "데스노트"의 무대는 하얗다. 연출가 쿠리야마 타미야(62)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신이나 살인자가 배회하기에는 암흑이 어울린다. 그러나 막 열어 본 노트의 첫 페이지를 표현하고 싶었다. 아무 것도 적혀 있지 않은 하얀 세계에 등장 인물이 나타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무대 콘셉트를 설명했다.

쿠리야마 타미야는 1980년 사무엘 베케트 '고도를 기다리며'를 통해 연출가로 데뷔했다. 장르를 불문하고 오페라, 뮤지컬에서 활약하며 수많은 수상을 했다. 일본 연극계 대표 연출가인 그는 원작 만화가 지닌 독특하고 속도감 있는 전개에 매혹돼 뮤지컬을 연출하기로 결심했다.

뮤지컬 음악은 일본 대중음악 엔카와 록을 기반으로 한다. '죽음'이 지닌 비장하고 차가운 면을 표현하면서도 대중적이다. 공연 내내 귀를 자극하는 '째깍째깍' 시계 초침 소리는 노트에 이름 적힌 사람이 40초 안에 죽게 된다는 규칙을 나타낸다. 작품을 전반적으로 공허하게 만드는 주요 기법이다.

"저는 연극을 만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관객에게 어떻게 전달할지를 가장 고민해요. 작품 속에 어떤 소리가 울리는지 귀 기울이는 데서 창작을 시작하죠. 이번에는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어요. 독일 문학가 미하엘 엔데는 '벌써 제3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고 있다. 그것은 시간 전쟁이다'라고 말했죠. '데스노트'의 시간은 40초예요. 이 짧은 시간에 무언가를 검증하는 건 불가능해요.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결론을 얻으려는 경향은 현대의 병이죠. 음악을 담당한 프랭크 와일드혼도 초침 소리가 무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어요. 주로 색채감이 풍부한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인데 이번엔 냉혹함을 표현했어요."

결론만 얻으려는 현대인의 병폐 꼬집어
국내공연 홍광호·김준수 원 캐스팅 화제

작품은 레플리카 뮤지컬(무대 디자인·대사 등 변경 없이 그대로 무대에 올리는 방식)로 6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한국 성남 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뮤지컬 원작 연출 팀이 직접 참여하고, 홍광호(라이토 역)·김준수(엘 역)를 비롯해 정선아(미사 역)·박혜나(렘 역)·강홍석(류크 역) 등 주요 출연진이 원 캐스팅 돼 화제다.

쿠리야마 타미야는 한국과 일본 버전 '데스노트' 차이점에 대해 "3년 전 명동예술극장에서 연출을 했을 때 비슷한 질문을 받았다. 나라 풍습을 반영하는 차원이 아니라 특정 작품 세계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 공연에선 보완할 부분만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쓰릴 미'를 연출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일본과 똑같았는데 배우만으로 전혀 다르게 보여지더라고요. 일본 배우와 한국 배우의 실력 차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 배우는 매력적이에요. 김준수, 홍광호는 대단한 스타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스타인지 여부는 저와 무관하죠. 두 사람이 맡은 역할과 얼마나 잘 맞는지가 중요해요. 저는 제가 만든 그림을 배우에게 강요하는 연출가가 아닙니다. 연습실에서 배우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인간의 심리를 끌어내고 싶어요. 엘과 라이트처럼 저와 배우들도 심리전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국 '데스노트'는 일본 복제 버전이 아닙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star bag

팔색조 모습으로 컴백



걸그룹 시크릿의 **전효성**이 다음달 첫 번째 미니 앨범을 발표한다. 이번 앨범 타이틀곡은 이단옆차기의작품이며 앨범에는 총 5곡이 수록될 예정이다. 소속사는 "전효성의 첫 미니 앨범은 지난 1년 동안 준비해온 결실로 그의 음악적 성장과 그룹 활동에선 볼 수 없었던 팔색조같은 모습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中 영화로 대륙 영화제 빛내



배우 **김범**이 중국에서 16일 개막한 제5회 베이징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았다. 김범은 다음달 15일 중국 개봉을 앞둔 영화 '중생애인'이 영화제에 공식 초청을 받아 영화제를 찾게 됐다. 레드카펫 참석 외에도 현지 유력 매체 인터뷰 등 바쁜 프로모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1박2일' PD로 변신



배우 **차태현**이 '1박2일' PD로 변신했다. 현재 '1박2일 시즌3' 멤버로 출연 중인 차태현은 다음달 8일 첫 방송을 앞둔 KBS2 새 드라마 '프로듀사'에서 '1박2일 시즌4'의 PD 라준모 역을 맡았다. 라준모는 '예능국 펠레'로 통하는 인물이다.

日 팬들과 특별한 첫 만남



배우 **박서준**이 오는 18일 일본 도쿄를 찾아 팬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낸다. 소속사 키이스트는 16일 "박서준이 드라마 '킬미, 힐미'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일본에서 방송되는 것을 기념하는 공식적인 행사에 단독으로 초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술 전시·기획… '시민 큐레이터' 길 연다

서울시립 교육 프로그램 마련… 개인 기획전 기회도 제공

평소 미술 전시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 전모 씨. 시간이 날 때마다 미술관에 다니며 전시를 즐기고 있지만 일방적인 작품 감상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꼈다. 자신이 원하는 작품으로 직접 전시를 기획하며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씨는 한 커뮤니티에서 일반인도 큐레이터가 될 수 있다는 공지를 보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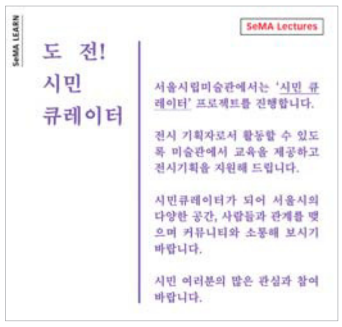
서울시립미술관이 공공기관 최초로 다음 달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큐레이터 양성과정을 교육한다. '도전! 시민큐레이터'로 시민 100명에게 무료로 전시기획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리자마자 이미 200여 명이 사전 신청을 했다. 전화문의도 빗발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컸다.

교육을 기획한 추여명 큐레이터는 "요즘엔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모토의 교육이 많다. 큐레이터만 어렵게 다가갈 필요가 있나 생각했다"며 "우리 미술관의 미션 자체가 미술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현대미술에 대한 괴리감을 이 기회를 통해 소통과 삶으로 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20세 이상 성인 누구나이지만, 경력단절 여성과 경력단절 전공자, 어르신과 미술 관련 학과 전공자가 교육 우대 대상이다. 우대 대상은 100명 중 30명을 선정하고, 나머지 70명은 추첨을 통해 뽑을 예정이다. 이들에게 교육 종료 후 개인별로 '전시기획안'을 제출받아 10명의 시민 큐레이터에게는 전시회 개최 기회까지 제공한다.

전씨는 "큐레이터라는 직업 자체가 학력과 지식이 필요한 일 같아 엄두도 못 냈다"며 "큐레이터의 세계를 알고 경계를 허무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큐레이터 양성과정 참여 이유를 밝혔다.



'도전!시민큐레이터' 안내 포스터.


4월 2일 '떠도는 몸들展 연계 강연 프로그램 2강' 강좌스케치.

교육은 총 12회 진행된다. 정연심 홍익대 교수를 비롯해 김용주 국립현대미술관 디자인 매니저 등이 강연자로 나서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관련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기초이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지식은 있지만 실제 경험이 없는 전공자에게는 현장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종 기획안은 '전시할 지역의 주민 의견 혹은 공간 특색을 반영해 기획할 것'이라는 조건이 달려있다. 이에 대해 학예사는 "큐레이팅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소통할지 고민하는 것"이라며 "삶 속에서 연결되는 전시를 기획해 지역의 특색을 파악하고 콘셉트를 잡으면 지역 주민들도 애착을 가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추 큐레이터는 "앞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돼 큐레이터 리스트가 확충되면, 시민 큐레이터를 각 미술관과 매칭해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신청은 23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한다.

/이유리기자 yuril@metroseoul.co.kr

'세월호 1주기' 연예계도 추모 물결

각종 행사 '올스톱'
스타들 SNS서 애도
가수 슬리피 문신까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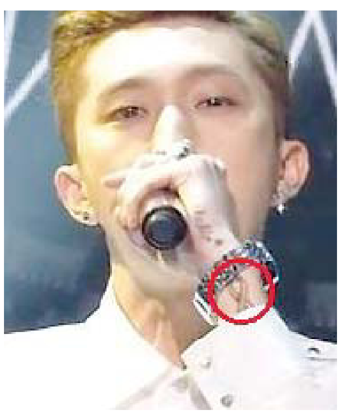
각계각층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중에게 즐거움을 주는 연예계도 잠시 멈추고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자 문화계는 올스톱 됐다. 올해 4월 16일 역시 쇼케이스나 제작발표회 등 각종 연예계 행사는 열리지 않았다. JTBC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기자간담회는 당초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하루 늦춘 17일로 변경됐다.

많은 스타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가수 윤종신은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14 월간 윤종신 4월호는 없다"는 짧은 멘트와 함께 노란 리본이 담긴 사진으로 세월호 사고를 기억했다. 엑소(EXO) 찬열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노란리본과 '리멤버 20140416. 세월호,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이미지를 게재했다. 배우 신민아도 인스타그램에 'Don't forget to remember 2014.04.16'이라고 밝히며 세월호 참사를 상기시켰다.

가수 솔비는 지난 13일 손수 그린 노란리본 그림을 공개하며 "바쁘게 지나간 시간들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함께 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앞으로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위로했다. 이외에도 신화 김동완, 샤이니 종현, 배우 이종혁, 려원 등 많은 스타들이 애도 물결에 동참했다.


힙합듀오 언터쳐블의 슬리피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후 노란리본을 문신으로 새겼다. /TS엔터테인먼트

배우 김우빈은 생전 자신의 팬이었던 단원고 학생 고(故) 김혜선 양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네가 있는 그곳은 네가 겪은 이곳보다 더 아름답고 예쁘겠지? 네가 내 팬이어서 감사해"라고 전했다. 힙합듀오 언터쳐블의 슬리피(본명 김성원)는 손목에 노란리본을 문신으로 새겼다.

한편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감독과 출연진은 미국 LA에서 열린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마친 후 16일 조용히 내한했다. 이들은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고자 공항 내 포토라인 등 취재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비공식으로 방문했다.

/김지민기자 langkim@

'어벤져스2' 신드롬 시작

예매율 75%… 오늘 배우들 내한 행사

오는 23일 개봉하는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하 '어벤져스2')에 대한 극장가 반응이 심상치 않다. 예매율부터 폭발적이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어벤져스2'는 16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예매점유율 75.3%를 기록 중이다. 이미 21만7265명이 '어벤져스2'의 티켓을 손에 쥐고 있다.

'어벤져스2'에 대한 인기는 두 가지 요인 때문이다. 할리우드 대표 오락영화 프랜차이즈로 자리잡은 마블 스튜디오의 작품이라는 것과 일정 부분을 한국에서 촬영했다는 점이다. '어벤져스2' 제작진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서울 시내 일대와 경기도 의왕시, 고양시 등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예고편에는 한국과 관련된장면들이임팩트있게 담겨 있어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어벤져스2'의 신드롬은 17일 열리는 내한행사로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내한한 조스 웨던 감독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크리스 에반스, 마크 러팔로는 한국 배우 수현과 함께 1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에 참석한다. 이어 오후 8시에는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리는 레드카펫 행사로 팬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진다.

/장병호기자 solanin@

오페라로 만나는 '신데렐라'

폰테뮤직 창단 연주회

안데르센의 동화 '신데렐라'가 오페라로 재탄생한다.

'신데렐라'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오페라로, 오는 18일 오후 3시와 7시 두 차례에 걸쳐 서울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폰테뮤직의 창단 연주회로 롯시니의 '신데렐라'를 공식 창단 작품으로 선보이게 됐다.

폰테(Ponte)는 이탈리아어로 다리라는 뜻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클래식 음악을 대중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다.



폰테뮤직은 "오페라 대부분이 주인공의 비극을 다룬 무거운 내용이지만 '신데렐라'는 가족 오페라인만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뮤지컬처럼 흥겹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어린이들에게 생애 최초의 오페라를 선사하기에 손색없는 작품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폰테뮤직은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연 예술총감독은 김학성이 맡았으며 김어진이 연출했다. 지휘는 이대원이 이끌며 소프라노 송혜영·이현수(이하 신데렐라 역), 테너 한정민·조윤진(이하 라미로 역) 등이 출연한다. 문의: 02) 3274-8600

/김지민기자



매주 토요일 밤 11시
FashionN
깐깐한 그녀들의 리얼검증 프로젝트
Real
Follow me 5
Queen
더 새롭고, 더 깐깐해진 리얼퀸들이 돌아왔다

'한식대첩' 시즌3 내달 21일 첫 방


'한식대첩3' 심사위원 셀카 찍는 모습.

각 지역의 자존심을 건 요리 대결로 인기를 끌었던 올리브TV '한식대첩'이 시즌3로 새롭게 돌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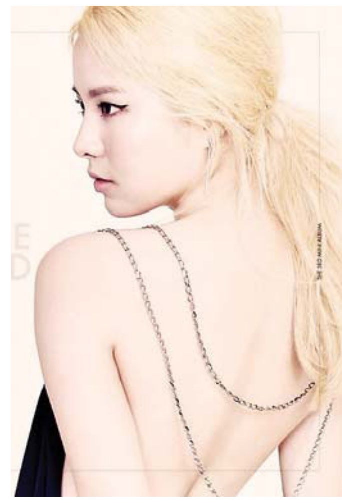
'한식대첩'은 전국 10개 지역(서울·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북한)을 대표하는 요리 고수들이 출전해 지역의 이름을 걸고 펼치는 한식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지난 시즌 새로 심사위원으로 합류했던 최현석과 백종원이 요리연구가 심영순과 함께 이번 시즌에서도 심사위원을 맡는다.

이번 시즌은 최초로 봄에 시작하는 만큼 상큼하고 다양한 봄·여름 식재료를 다룰 예정이다. 지난 시즌에 방어나 애저같이 비싸고 진귀한 식재료가 등장했다면, 이번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봄나물 같은 재료들이 놀랍게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비장의 무기'라는 새로운 제도도 등장한다. 다음달 21일 오후 9시40분 첫 방송.

/이유리기자 yuril@

김예림 시크·당당 매력 발산

미니 3집 '심플마인드'서 파격변신



가수 김예림이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온다.

김예림은 이달 말 세 번째 미니앨범 '심플 마인드(Simple Mind)'를 발표한다고 소속사 미스틱 엔터테인먼트가 16일 밝혔다.

'심플 마인드'는 남녀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복잡할 것 같아도 사실은 단순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스스로의 감정에 충실한 심플 마인드로 상대에게 다가가야 후회 없는 멋진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소속사는 파격적인 금발 머리와 백리스(Backless) 드레스 차림의 김예림 사진을 공개해 기대감을 높이며 "'심플마인드'는 단순명료한 김예림의 성격을 표현하는 곡이다. 단순(Simple)하지만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솔직담백한 김예림의 모습이 이번 앨범의 메인 테마"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22세가 된 김예림의 시크하고 당당한 매력이 음악으로 표현될 것"이라며 "몽환적인 음색을 가진 소녀로 대중과 처음 만나 신비함을 자아냈던 김예림이 '심플 마인드'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오해를 풀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예림의 새 앨범을 위해 국내 최고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해 호흡을 맞췄다. 김예림은 복잡하고 어려운 메시지가 아닌 대화를 나누듯 또래와 공유할 수 있는 음악으로 대중과 소통하겠다는 각오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SBS '궁금한 이야기 Y'

오후 8시5분

세월호 참사 후 여전히 2014년 4월 16일을 살아가는 여덟 가족의 사연이 방송된다. 영인이를 위해 새로 사둔 축구화는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했고, 음악을 좋아하던 현철이의 기타도 팽목항에서 1년째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여전히 1년 전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정리=이유리기자

◆ KBS2 '두근두근 – 인도'

오후 9시30분

멤버들이 규현을 위한 깜짝 생일파티를 준비한다. 이들은 '캡틴' 김기흥 기자와 '눈치 100단' 규현의 눈을 피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번갈아 가며 방을 들락날락 거리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 MBC '나는 가수다'

오후 10시

대북과 꽹과리를 이용해 역동적인 무대를 선보인 양파, 감동적인 가사와 말하는 듯한 노래로 눈물짓게 한 하동균, 고난이도 노래를 소화한 박정현, 조용필 노래로 평가단을 사로잡은 스윗소로우, 카리스마 넘치는 김경호의 무대를 만날 수 있다.



◆ 엠넷 '댄싱9 – 시즌3 올스타전'

오후 11시

본격적인 1차전이 방송된다. 1차전은 영화 OST를 배경으로 하는 '무비매치'로 진행된다. '다크나이트' '쿵푸팬더' 등 인기 영화들을 춤으로 재해석한 무대들이 총 5라운드에 걸쳐 펼쳐질 예정이다. 블루아이 김설진이 조커의 모습을 하고 등장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7일 (금)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안전점검 시리즈	30 뮤직뱅크	10 생방송 오늘 저녁	20 해피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20회) 05 이얍! 스페이스 정글 25 지구를 지켜라 45 악동클럽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두다다쿵 (영어·한국어) (재) 50 Real Fun World 2 (재) 55 로보카 폴리 (영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50 오늘부터 사랑해 (10회)	15 불굴의 차여사 (71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달려라 장미 (88회)	00 두근두근 학교에 가면 (2회) 30 EBS 뉴스 50 장수의 비밀	10 로보카 폴리 (한국어) (재) 25 모피와 친구들 (영어) (재) 35 Real Fun World 3 (재) 40 모피와 친구들 (한국어) (재) 50 두키 탐험대 (영어) (재)
20시	25 당신만이 내사랑 (105회)	30 VJ 특공대	55 압구정 백야 (129회)	00 SBS 8 뉴스 55 궁금한 이야기 Y	2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50 하나뿐인 지구	00 Real Fun World 4 (재) 10 두키 탐험대 (한국어) 20 스쿨랜드 – 학습송 30 세계의 교육현장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두근두근 인도 (2회)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명의	00 문화유산 코리아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KBS 다큐 1 55 숨터	55 나를 돌아봐 (1회)	00 나는 가수다	00 정글의 법칙	45 고전영화극장 <사형대의 엘리베이터>	0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50 세계의 아이들(영어자막) (재)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생방송 심야토론		15 나 혼자 산다	25 불타는 청춘		30 EBS 초대석
24시		15 유희열의 스케치북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5 나이트라인	15 하늘에서 본 세계 50 사바나의 불새, 붉은벌잡이새	25 역사채널e 30 다문화 '사랑'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썰전 (111회) (재)		00 샘과 레이먼의 올리브 쿠킹타임 듀엣 (20회) 30 샘과 레이먼의 올리브 쿠킹타임 듀엣 (30회)		20 21	◆ 프로야구 18:30 롯데 vs 두산 (SKY TV, SPO TV2) LG vs SK (SPO TV+, SPO TV) NC vs 한화 (SBS SPORTS, IB SPORTS) KT vs 삼성 (MBC SPORTS+) 넥센 vs KIA (KBS N SPORTS)
19시	55 JTBC 뉴스룸	10 슈퍼대디 열 (10회) (재)	00 오늘 뭐 먹지? (40회) 40 오늘 뭐 먹지? (29회)	00 세계로 가는 아시아 헌터 (7회)		
20시	50 냉장고를 부탁해 (22회) (재)	30 슈퍼대디 열 (11회)	20 마스터셰프 코리아 (2회)	00 쇼킹 70억 (21회)		
21시	45 순정에 반하다 (5회)	40 꽃보다 할배 in 그리스 (4회)	30 마스터셰프 코리아 셀러브리티 (7회)	00 <아프리카의 심장, 콩고>1부. 생명의 강	00 프레데터스	
22시				00 <아프리카의 심장, 콩고>2부. 킹콩의 집		
23시	00 마녀사냥 (88회)	30 초인시대 (2회)	00 댄싱9 시즌3 (3회)	00 <2차 세계 대전>히틀러의 유럽 침략	20 대부 1	
24시	35 썰전 스페셜 (111회)	40 슈퍼대디 열 (11회) (재)	30 괜찮아, 사랑이야 (3회)	00 예수가 선택한 제자, 12사도 (2회)		



위기의 봉중근 "김기태 감독님 미워요"

LG시절 마무리 보직 맡긴 스승… KIA전 '불쇼' 위기론 불거져



봉중근


김기태 KIA 감독.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철벽 마무리 봉중근(35)이 위기에 빠졌다.

봉중근은 지난 15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의 정규시즌 3차전에서 9회 초 팀의 4번째 투수로 나와 아웃카운트 없이 안타만 3개를 맞고 3실점했다.

봉중근에게 무한 신뢰를 보냈던 양상문 LG 감독은 이날 팀이 2-5로 뒤진 상황이었지만 봉중근을 내보냈다. 최근 투구 내용이 좋지 않았던 그에게 편하게 공을 던져보라는 뜻이 담겨있었다. 9회 초를 잘 막아내면 9회 말 반전까지도 기대했다.

하지만 봉중근은 김주찬이 1루에 있는 상황에서 강한볼을 맞아 3구째 번트 안타를 내줬다. 이어 브렛 필에게 좌전 안타를 얻어맞았고, 이호신에게 또 안타를 내주며 신재웅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봉중근은 올 시즌 7경기에 나서 3세이브(2패) 수확에 그치고 있다. 3⅓이닝 13피안타(2피홈런) 5볼넷 9실점으로, 삼진은 겨우 1개만을 잡아냈다. 세이브를 기록한 경기도 깔끔하지 못했다. 지난 10일 두산전은 김용의의 호수비로 한숨을 돌렸고, 8일 한화전에선 3루수 윤진호의 호수비 덕에 끝내기 패배를 막을 수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봉중근 위기론'은 2012년 그를 마무리로 키워낸 김기태 감독이사령탑으로 있는 KIA 타이거즈와의 경기부터 불거졌다.

지난달 29일 KIA는 봉중근을 상대로 브렛 필의 끝내기 역전포를 앞세워 짜릿한 승리를 챙겼다. 이때 봉중근의 구위가 지난해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후 봉중근은 8일 한화전, 10일 두산전에서 세이브를 따내며 부진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듯 했다. 하지만 15일 봉중근은 KIA를 만나 다시 한번 고개를 떨궜다.

현재 LG는 한나한·류제국·우규민 등 주전들의 줄부상 속에서 양석환 등 백업 선수들이 제 몫을 해주며 근근히 버티고 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된다. 뒷문이 불안하면 LG의 끈끈한 팀 플레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봉중근이 살아나야 한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18호골 조준 손흥민 "하노버 나와"



18일 오후 10시30분 출격 기성용은 30분 뒤

'손세이셔널' 손흥민(23·레버쿠젠·사진)이 시즌 18호 골이자 2경기 연속 골에 도전한다.

레버쿠젠은 18일 오후 10시30분(한국시간) 홈 구장인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2014-2015 독일 분데스리가 29라운드 하노버96과의 홈경기를 치른다.

손흥민은 지난 11일 마인츠05와의 원정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며 리그 11호, 시즌 17호 골을 기록했다.

29라운드에서 맞붙는 하노버는 지난해 11월 레버쿠젠의 원정경기 때 손흥민이 골을 넣었던 상대다. 당시 손흥민은 약 1개월 만에 골 맛을 보며 리그 5호, 시즌 11호 골을 기록한 바 있다.

또 레버쿠젠이 14승9무5패, 승점 51로 4위를 달리고 있는데 비해 하노버는 7승8무13패, 18개 구단 가운데 15위에 머무는 하위권 팀이라 손흥민의 득점 가능성이 크다.

손흥민은 앞으로 두 골을 더 넣으면 차범근 전 수원 삼성 감독이 보유한 역대 한국 선수 시즌 최다 골 기록(19골)과 타이를 이룬다.

손흥민과 '코리안 더비'에서 나란히 득점포를 가동한 구자철(26·마인츠)도 같은 시각 프라이부르크 원정경기에서 5호 골을 겨냥한다.

구자철은 손흥민과의 맞대결에서 동료 선수들이 얻어낸 페널티킥의 키커로 나서 2골을 넣으며 리그 3,4호 골을 몰아쳤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기성용(26·스완지시티)은 18일 오후 11시 레스터시티와의 원정경기를 치른다. 4일 헐시티를 상대로 시즌 7호 골을 넣은 기성용은 아시아 선수를 통틀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 골 기록을 써나가고 있다.

/김민준기자

'네이마르·메시·수아레스' 3각편대 날았다

챔스리그 8강 1차전 바르셀로나, 3-1 승


FC바르셀로나의 루이스 수아레스(왼쪽)가 16일 열린 파리 생제르맹과의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원정경기에서 팀의 두번째 골을 넣고 네이마르와 환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스페인 FC바르셀로나가 '네이마르-메시-수아레스'의 삼각편대를 앞세워 파리 생제르맹(프랑스)을 꺾고 2014-201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의 유리한 고지를 밟았다.

바르셀로나는 16일 오전(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드 프랭스에서 열린 생제르맹과의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원정경기에서 네이마르의 선제골과 수아레스의 2골로 3-1 승리를 거뒀다.

첫 골은 메시의 발끝에서 나왔다. 전반 18분 메시가 상대 페널티아크 지역으로 돌진하다 왼쪽으로 패스했고, 네이마르가 이를 잡아 골키퍼 옆을 지나는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만들었다.

수아레스는 후반 22분 페널티지역 밖에서 볼을 잡고서 수비수 3명을 제치면서 오른발로 슈팅을 날려 추가골을 만들어냈다. 이어 후반 33분 중앙선 아크지역 부근에서 원터치 패스를 받은 뒤 수비수 1명을 제치고 골대 오른쪽 모서리로 볼을 꽂아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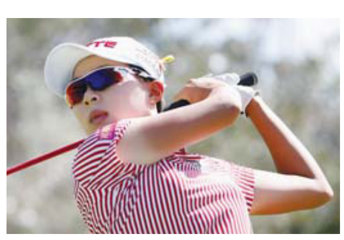
메시도 전반 13분 '전매특허'인 왼발 감아 차는 슈팅을 날려 골대를 맞히는 등 위협적인 슈팅을 날리며 종횡무진 활약했다.

한편 바이에른 뮌헨(독일)은 FC 포르투(포르투갈)와의 8강 1차전 원정에서 경기 시작 1분 만에 수비수 실수로 골을 내주는 등 우왕좌왕하며 1-3으로 패했다. /김민준기자

노란리본 달고 나선 한국 선수들

롯데챔피언십 1R 상위권 점령… 김인경 선두

김인경(27·한화)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롯데챔피언십에서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김효주가 모자에 노란리본을 달고 티샷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김인경은 16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오아후 코올리나 골프클럽(파72·6383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8개를 낚아 7언더파 65타를 쳤다.

2010년 11월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에서 LPGA 투어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한 뒤 번번이 정상 문턱에서 돌아섰던 김인경은 단독 선두로 나서 4년 5개월 만의 우승에 도전한다.

공동 2위도 한국 선수들 차지였다. 최나연(28·SK텔레콤)과 김세영(22·미래에셋), 박인비(27·KB금융그룹)는 5언더파 67타를 쳐 단독 선두에 2타 뒤진 2위 그룹을 형성했다.

제니 신(23·한화)도 4언더파 68타로 5위에 올라 리더보드 상단을 한국 선수들의 이름으로 채웠다.

파운더스컵 우승자 김효주(20·롯데)는 버디 4개에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쳐 이미림(25·NH투자증권)과 함께 공동 6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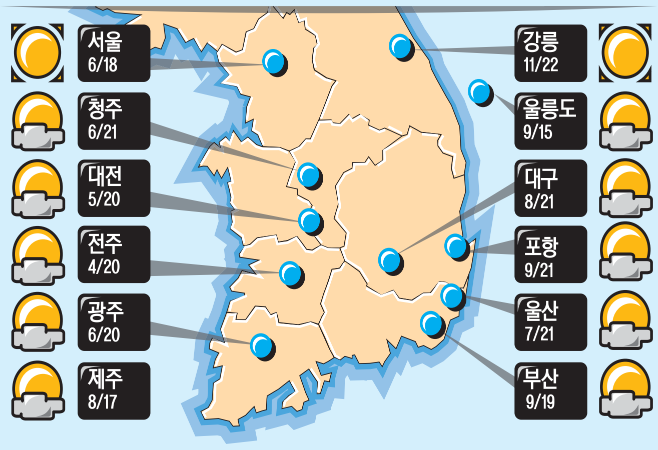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재미동포 미셸 위(26)는 2언더파 70타를 쳐 공동 15위다.

한편 이날 김효주, 김세영 등 일부 한국 선수들은 세월호 참사 1주년을 기리기 위해 모자에 노란 리본을 달고 경기했다. /김민준기자

날씨

4/17 금 일출시각 05:56 일몰시각 19:0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감기 가능 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3				9	7		
				5				6
2		9						
	5		2					1
	4		5	8	3		9	
9					1		3	
						1		5
8				6				
		5	1				4	3

6							1	8
		7		9	1			
8	2				3			
5	3					1		
				4				
		4					5	2
			9				8	5
			4	5		2		
4	9							7

스도쿠 정답

5	3	6	8	2	9	7	1	4
4	8	1	3	5	7	9	2	6
2	7	9	6	1	4	3	5	8
3	5	7	2	9	6	4	8	1
1	4	2	5	8	3	6	9	7
9	6	8	7	4	1	5	3	2
7	2	4	9	3	8	1	6	5
8	1	3	4	6	5	2	7	9
6	9	5	1	7	2	8	4	3

6	5	9	7	2	4	3	1	8
3	4	7	8	9	1	5	2	6
8	2	1	5	6	3	9	7	4
5	3	8	6	7	2	1	4	9
9	7	2	1	4	5	8	6	3
1	6	4	3	8	9	7	5	2
2	1	6	9	3	7	4	8	5
7	8	3	4	5	6	2	9	1
4	9	5	2	1	8	6	3	7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Take pot luck

<복불복이다>

시사 English

성완종 리스트에서 비롯된 이른바 '이완구 국무총리 3000만원 뇌물 수수' 논란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정계와 여론은 이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총리를 비롯한 김기춘, 허태열, 홍문종씨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 또한 치솟고 있는 상태지요.

하지만 비난의 여론을 조용히 비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정복 인천시장입니다. 그는 22살 연세대 재학중 행시에 합격한 뒤 장관직 러브콜만 세 차례 받은 관운(官運)이 트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7대 국회부터 내리 3선을 한 경력도 있지요.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시, 2015 세계 책의 수도 개막행사 및 추진계획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지난해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인천시는 지금 비리와 부패로 얼룩져 있다"며 "현재 인천시의 부정부패·측근비리를 척결하고 '깨끗한 인천'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유 시장은 리스트에 그의 이름과 함께 3억원이라는 액수가 기재됐습니다. 그런데도 여론의 화살은 오직 이 총리에게만 향하고 있습니다.

'복불복'이란 사람의 운수에 따라 좋고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즉 운이 좋은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고, 운이 없는 사람은 안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뜻이지요.

이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으로는 'take pot luck'이 있습니다. '복불복이다' 또는 '운에 맡기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 시장은 타고난 관운에 자신을 다시 한번 맡겨도 될지 의문입니다. 그는 정말 '행운의 아이콘'인걸까요. 만약 복불복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Just my luck!' (복도 없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가부장적 애인과 잦은 다툼… 인연이 아닌가요
역지사지로 먼저 이해해주면 상대도 바뀔것

달래미 여자 91년 11월 5일 양력 18시 10분
남자 86년 7월 7일 양력 18시

Q 남자친구와 사귄지는 400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중간에 남자친구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잠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같이 있으면 좋고 떨어져 있으면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그 행동으로 인해 항상 생각이 나고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해외여행을 한 달간 잠깐 다녀온 적이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싸웠고 또 금방 풀어지고 싸울 때마다 이 남자랑은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고 너무 가부장적이고 독선적이고 제 입장에선 이기적인 성격으로 보입니다. 이 남자랑 연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건지 다른 연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 누구나 각각 처한 입장이 다르다보니 자기 처지에서 보는 관점으로 인해 생각 또한 다른 것이지 서로가 역지사지의 입장을 가진다면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으며 남자에게 느끼는 가부장적인 중압감 자체를 달리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반복해서 말하지 않게끔 본인도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나를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을 원하기보다는 나또한 성숙한 여인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는다면 상대가 바뀌도록 노력할 것으로 봅니다. 상생의 궁합은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여서 상생(相生)이 되도록 하는데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 사주의 향기로운 기운이 고루 분포 되어 있어야 남녀 각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일주(日柱:생일)가 생합(生合)을 이루는 것이고 궁합이 맞으면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단점까지도 장점으로 봐 줄 수 있게 됩니다. 궁합이 안 맞으면 아무리 잘해보려고 애써도 서로가 자꾸 어긋나고 안 좋은 감정이 쌓이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장점까지도 마음에 안 들어 하게 됩니다. 생활을 하다보면 당사자끼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척이나 식구들의 영향으로 맑은 날도 있고 궂은 날도 있지만 궁합이 맞으면 서로 이해하고 뜻이 잘 통하므로 행복하고 맑은 날이 많은 상태에서 살게 됩니다. 궁합이 잘 맞는 부부는 텔러파시가 서로 통하여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얼굴표정이나 직접보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세세히 실망하여 따지기보다는 지혜를 발휘하여 누구를 만나도 평소 상대를 잘 이해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4월 17일 (음 2월 29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쥐 — **48년생** 거듭 실패가 계속됩니다. **60년생** 매사가 안절부절 입니다. **72년생** 과로를 피하고 잠시 휴양을 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84년생** 윗사람에게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 — **49년생** 당당하던 기세가 한풀 꺾일 때입니다. **61년생** 근신하며 수양에 힘쓰도록 하세요. **73년생** 남쪽으로 향하세요. **85년생**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대하게 됩니다.

호랑이 — **50년생** 좋은 운은 늘 오지 않습니다. **62년생** 바라고만 있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74년생** 개업이나 전업은 흉합니다. **86년생** 병을 초기에 발견하면 빠른 치료를 해야합니다.

토끼 — **51년생** 괴이한 곳에 가지마세요. **63년생** 동쪽에서 온 사람과는 반드시 원수가 됩니다. **75년생** 음식을 조심하세요. **87년생** 취직은 낮은 데로 지원했다면 합격입니다.

용 — **52년생** 조금 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64년생** 부모님에게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76년생** 직업을 바꾸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88년생** 포기하지말고 기다려 보세요.

뱀 — **53년생** 호화로운 삶을 꾸려 나가며 가족들과 기쁨을 같이 합니다. **65년생** 금의환향(錦衣還鄕)하는 운세입니다. **77년생** 고난이 다가옵니다. **89년생**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말 — **54년생** 편도선질병을 주의하세요. **66년생**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기세요. **78년생** 본인의 마음가짐을 중요한 것입니다 **90년생** 싸움에 휘말리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양 — **55년생** 주변인들이 스스로 도우니 모든 일이 뜻대로 됩니다. **67년생** 자녀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79년생** 큰 돈을 만지게 됩니다. **91년생**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원숭이 — **56년생** 시비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68년생** 새로운 사람과 친구가 됩니다. **80년생** 모든 운이 뚫려 행복한 하루가 됩니다. **92년생** 가방 분실을 주의하세요.

닭 — **57년생** 신념을 가지고 매사를 이끌어 나가세요. **69년생** 혼자 일을 해결하게 됩니다. **81년생** 꾀하는 일마다 마(魔)가 서려 있습니다. **93년생** 헛된 꿈이나 욕망은 삼가하도록 하세요.

개 — **58년생** 경망된 행동은 삼가야겠습니다. **70년생** 가족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세요. **82년생** 안되는 일이 없고 부귀와 명예가 따릅니다. **94년생** 모든 일이 어수선하고 불길합니다.

돼지 — **59년생**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71년생** 오늘은 체력적으로 힘든 하루입니다. **83년생** 모든지 양보하면 길합니다. **95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成리스트' 이완구 수사 초읽기 몰리나

비타500 돈박스·운전기사 증언 등 특별한 관계 정황 드러나

홍준표 지사의 1억원 수뢰 보도 이후 이번엔 이완구 총리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현금 3000만원을 넣은 비타500 박스를 직접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온데 이어 이 총리가 성 회장을 23번 만난 것 또한 직접 인정했다. 게다가 이 총리의 운전기사와 성 회장 최측근인 경남기업 박 상무의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재·보선 당시 이 총리 캠프에서 활동한 한 운동원은 언론을 통해 "2013년 4월 4일 부여선거사무소에서 성 회장의 수행비서를 직접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수행비서가 성씨의 직함을 '의원'이 아닌 '회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다"며 "최근 성 회장 관련 보도를 보면 그날 부여선거사무소에서 본 낯익은 얼굴이 있다"고 덧붙였다. 성 회장의 운전기사 여모 씨도 언론 인터뷰에서 "성 회장이 수행 직원과 함께 선거사무소를 찾았다"며 " 비타민음료 상자를 가지고 있는 걸 봤다. 하여튼 우리 차에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총리는 대정부질문 셋째날인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후보 등록 첫날이라 사무소에서 수십 명의 기자들과 수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며 "성 회장과 독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성 회장이 이 총리를 만난 것에 대한 증언은 계속되고 있다. 이 총리를 수행한 운전기사 역시 이완구 국무총리가 지난 2013년 4월 4일 오후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만나 독대했다고 증언했다. 성 전 회장측이 아닌 이 총리측 비서진이 직접 그날의 진실에 입을 연 것이다.

이 총리는 연일 계속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성완종 전 회장을 만난 기억이 없고, 독대를 안 했다"며 만남 자체를 부인해 거짓말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이완구 총리를 수행한 운전기사 A씨는 CBS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그해 4월 4일 이 총리와 고 성 전 회장이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만났고, 독대를 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완구 총리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은 다름 아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기 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다. 성 회장은 인터뷰에서 이완구 국무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16일 경향신문이 공개한 성 전 회장 인터뷰 전문에는 '이완구'란 이름이 총 9차례 등장한다. 첫 언급에서 성 전 회장은 "이완구 총리 같은 사람이 사정 대상 1호"라고 주장했다. 부정부패 척결을 정책 전면에 내세운 이 총리를 비난하는 말이다.

한편 이 총리는 세월호 1주기인 이날 안산시 추모분향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운전기사의 증언과 관련해 성 전 회장을 단독으로 만났느냐"고 묻는 말에 "기억을 못한다.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고 대답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16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의 열쇠를 쥔 관련자 조사에 승부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들인 이들의 증언이 구체적이면 여권의 유력 인사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이 총리의 수사가 초읽기에 몰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으로부터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은 이완구 국무총리가 15일 저녁 국회 본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심폐소생술 교육 16일 오전 서울 구로소방서에서 관내 음식점 관계자들이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팽목항 분향소 폐쇄… 정부-유가족 '갈등' 심화

'선체 인양·시행령안' 대립… 정부 "검토 중" vs 유가족 "결정할 때"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았지만 선체 인양과 시행령안 등을 놓고 정부와 유가족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에서 온전한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팽목항을 찾아 이른 시일 내 선체 인양에 나설 것을 밝혔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검토가 아닌 결정을 내릴 때라며 항의하고 있다.

4·16세월호가족협의회는 16일 오전 팽목항에 마련된 분향소를 임시 폐쇄했다. 선체 인양과 시행령안 폐기 등을 촉구하는 항의 차원에서다.

앞서 지난달 27일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을 놓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있어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애초 125명인 특위의 조직을 90명으로 대폭 줄이면서 공무원 비율은 늘리고 민관 비율은 줄이는 사실상 '정부 주도'의 형태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 자문 기구인 입법조사처 조차 세월호 시행령안이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의 의미와 목적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할 정도다.

진상 규명 대상도 축소됐다. 특위는 애초 취지인 진상 규명에 따라 ▲참사 원인 ▲구조구난 작업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으로 정했지만 해수부는 정부조사자료 분석과 조사로 범위를 제한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문가가 참여해 인양 가능 여부를 검토한 시점은 지난해 11월 이후로 그 전까지는 수색이나 구조 중심이었다"며 "인양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마련하고,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월호 협의회 등은 정부의 확실한 인양 결정 선언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근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지금쯤이면 인양 결정을 내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시행령안에 대해선 "현 상황으로 볼 때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연미란기자 actor@

서울 지하철·버스요금 오른다

6월 말부터 각각 250원·150원 씩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6월 말부터 각각 250원, 150원씩 최대 23%까지 오를 전망이다. 대신 오전 6시30분 이전 탑승자에게는 '조조할인제'가 도입되고,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동결키로 했다.

16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대중교통 요금 조정책을 내놓고 서울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했다. 시는 지하철 요금 200원, 버스는 150원을 인상하는 2안도 함께제출했으나 250원, 150원 인상안을 기본안으로추진하고 있다.



기본안이 채택되면 지하철 기본요금은 현재 1050원에서 1300원으로 23%, 간·지선버스 요금은 1050원에서 1200원으로 14.2% 인상된다. 광역버스도 450원 인상돼 현행 1850원에서 2300원으로, 마을버스는 100원 인상돼 현행 750원에서 850원으로 각각 요금이 오른다. 서울시가 대중교통요금을 올리는 것은 2012년 2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150원씩 인상한 이후 3년여 만이다.

대신 시는 오전 6시30분 이전 교통카드를 이용해 탑승하는 경우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조조할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하철과 서울 버스, 경기 광역버스에서 먼저 시행한 뒤 경기와 인천 시내버스에도 확대 시행된다.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동결된다. 대신 어린이는 현금할증을 폐지, 교통카드와 현금 모두 같은 요금을 받기로 했으며 청소년은 현금을 낼 경우 성인요금을 내야 한다.

시는 "원가보다낮은 요금수준과 무임수송으로 적자가 늘어나고있고 안전을 위해 노후시설에 재투자가 필요한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국가 정책에 따라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비 보조를 전혀 받지 못해 운영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시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버스정책시민위원회와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조정된 요금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연미란기자 actor@


당신의
은퇴는
쾌청합니까?
퇴직연금과 체크카드가 만났습니다
금융수익에 추가 적립혜택까지
오늘은 혜택 받고 내일은 여유로워지는
금융라이프를 시작하세요
당신의 오늘과 내일은 쾌청해질 것입니다
able i max Card
퇴직연금상품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적립
연 12%
당월 카드 사용 실적
*상품별 최소 가입금액 미만 또는 금융상품 가입금액을 초과한 사용 실적에 대해서는 연 6.0%로 월 단위 적립 (유효기간 3년)
현대증권 결제계좌 CMA 우대수익률
연 4.1%
500만원 한도, 우대조건 충족시, 세전RP형 수시, 기본수익률 세전 연 1.9%(기준일:2015년 1월 29일)
퇴직연금 세액공제
700만원
체크카드 소득공제
30%
증권사 최초 금융상품 연계 체크카드
i max
able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00352호(2015년 1월 21일~2016년 1월 20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용한도 1일 600만원, 월 1,000만원(카드별 관리) ※우대조건 등의 자세한 내용은 현대증권 홈페이지 참고※CMA 기본수익률은 입금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대증권